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매뉴얼

지금 시작하는  
젠더감수성

제작  **삼남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 지금 시작하는 젠더감수성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매뉴얼

# Gender

# S

# N

# D

# E

# R

# Leader



지금 시작하는 **젠더감수성**

---

젠더감수성교육 매뉴얼을 소개하며 : 우리에게 젠더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6

들어가며 : 젠더감수성교육 이해하기 10

매뉴얼 활용방법 18

1강 나의 젠더감수성 돌아보기 | 젠더감수성으로 다시 보는 나 21

2강 젠더감수성으로 나와 타인의 관계 돌아보기 | 너와 나의 차이, 우리가 함께 만드는 평등 37

3강 친밀한 관계와 젠더감수성 | 더 좋은 관계 만들기 57

4강 아동성폭력과 젠더감수성 | 아동성폭력에 제대로 맞서는 방법 71

5강 십대의 성과 젠더감수성 | 십대의 성, 젠더감수성으로 대화하기 91

6강 일터 내 성폭력과 젠더감수성 | 성폭력 없는 일터 함께 만들기 105

7강 마을 공동체와 젠더감수성 |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위한 지혜 모으기 129

# 젠더감수성교육 매뉴얼을 소개하며

## 우리에게 젠더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쉼터 ‘열림터’는 2009년 서울시 SH공사로부터 무상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이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입주할 동네에 열림터 이사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고, 주민들이 열림터의 이전을 반대하는 ‘혐오시설입주반대’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였습니다. 2009년은 조00 사건 등의 여파로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던 시기였지만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거주하는 쉼터는 이웃들에게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쉼터의 위치가 공개되었을 뿐 아니라 반대에 부딪친 열림터는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차별문화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들이 내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폭력피해자는 낯설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이것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시민들과 ‘성폭력생존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젠더감수성교육을 시작하고자 했던 출발점이었습니다.

젠더감수성교육은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찰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폭력피해자들의 삶에 대한 고민과 성폭력이 발생하는 문화에 대한 책임의식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시민들에게 성폭력피해자는 그저 ‘나와 거리가 먼 곳에 존재해야 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

진 불쌍한 여성'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교사로서, 혹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그들과 소통하며 관계 맺을 것인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젠더감수성교육은 젠더 관련 교육을 바탕으로 반성폭력 인식 확산을 돕는 시민교육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구성입니다. 기존의 성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에 대해 피해야 할 상황이나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것만을 강조할 뿐, 막상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그 사회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은 우리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생활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를 홀로 떠맡은 채 살아갑니다. 성폭력이라는 주제 자체가 터부시되다보니, 성폭력피해는 예외적인 일로만 취급되며, 심각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만 잠깐 동안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에 그칩니다. 성폭력피해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성폭력피해생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제시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

나라, 성폭력피해를 더욱 더 비가시화시킴으로써 성폭력피해생존자로 하여금 침묵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예방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성폭력생존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키우는 내용을 함께 포함한 젠더감수성교육은 반성폭력 시민의식을 만들어나가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직장과 학교에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제도화된 성폭력예방교육은 내용과 방식 면에서 심화된 성폭력예방의 담론을 담아내기 보다 제한된 시간 안에 규격화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젠더감수성교육은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구성과 방식을 젠더체계 전반으로 확장하여 교육생들의 활발한 토론이 가능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제도화된 영역이 아닌 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기획할 때 적합한 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젠더감수성교육은 다양한 시민들이 ‘반성폭력’ 이슈에 대한 공동체적 관점을 함께 세워나가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젠더감수성교육은 양성평등 교육과도 다릅니다. ‘여성’과 ‘남성’이 다른 권력과 다른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접어두고 평등만을 이야기한다면 젠더화된 다양한 문제들이 사소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별 관계의 ‘평등’을 막연히 이



야기하기보다 성별에 따른 권력의 차이를 먼저 논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평등'을 지향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를 이해하며 섹슈얼리티의 위계와 폭력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젠더감수성교육이 교육 참여자들로 하여금 더욱 섬세하게 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만들어나가도록 도움이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과의 접점을 찾아 젠더감수성교육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 매뉴얼을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 매뉴얼이 적극 활용되어서 젠더감수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들어가며

## 젠더감수성교육 이해하기

### 1. 젠더감수성은 우리 모두의 삶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별’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기 전에 가장 먼저 파악하려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와 행동(몸짓)에 따라서 ‘여성’ 혹은 ‘남성’이라고 인식하고, 여성 또는 남성이므로 ‘이 사람은 ~할 것이다’라는 편견을 갖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성별이분화된 사회’ 또는 ‘젠더화된(gendered) 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공간이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 둘로 나뉘어있다는 것을 표현한 개념입니다. 젠더란 성별을 특정하게 유형화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사회를 구성해내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젠더는 우리 사회를 이루는 요소들 중 하나인 것이죠.

젠더는 사회요소로서 다른 사회요소들과 얽혀서 드러납니다. 젠더는 우리가 양육되고 성장할 때,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법과 제도를 만들 때 등 곳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상상력을 제한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싸움의 기술을 익히거나 몸을 단련하기보다 남성이나 제도에 의존하여 보호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젠더화된 사회’는 싸움을 잘하는 몸, 체격이 큰 몸, 근육질의 몸, 남성과 맞서 싸우는 몸은 여성답지 않다고 여겨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현실적인 성폭력 대처법보다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여성되기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젠더는 우리에게 매우 밀접하고 익숙해서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거나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젠더와 다른 사회요소들이 얽혀 만들어낸 사회현상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감수성이 바로 젠더감수성입니다. 따라서 젠더감수성은 ‘젠더화된 사회를 읽어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젠더감수성은 우리의 삶 곳곳에 존재하는 젠더 문제를 근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감수성입니다.

## 2. 나에게 젠더감수성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젠더감수성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여성에게 기대되는 삶(날씬해야 한다, 결혼을 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 등) 때문에 갈등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은 상당수 성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여성은 남성과 다른 역할이 기대되고 다른 책임이 주어지므로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별의 차이에 집중해서 발생하는 역할 구분과 차별은 젠더화된 사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젠더화된 사회를 살면서 겪는 경험들은 우리의 젠더감수성에 자원과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젠더감수성은 사회에도 존재합니다. 젠더감수성이 높은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젠더감수성이 높은 사회는 ‘젠더’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구조적이고 담론적인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도 한국사회의 젠더감수성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1990년대 초반까지 법적인 해결이 매우 어려웠고 성폭력 피해 여성이 정조를 침해당한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이라는 단어와 성폭력의 의미가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성폭력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하고, 성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요구되면서, 정부는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 법률구조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젠더감수성교육에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 곳곳에 숨어있는 젠더의 이야기들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 3. 젠더감수성교육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긴 여행입니다.

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젠더감수성교육’을 기획하게 되었을까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노, 성폭력생존자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공분’을 만들어내지만 그 공분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 개개인의 실천을 모색하는 데까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시민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성폭력 없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습니다. 오랜 고민과 토론 끝에 상담소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 개개인의 실천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맥락과 배경, 즉 젠더화된 사회의 면면을 공유하고 이를 젠더감수성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폭력은 젠더 문제입니다. 성폭력은 발생 구조부터 피해자/생존자들이 경험하는 트라우마까지 젠더화된 사회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구도는 여성과 남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다움’이라는 가치 안에서 성장해온 여성들은 자신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교, 달래기, 외면’과 같은 수동적인 방식으로 외부의 공격에 대응합니다. 이때 ‘여성다움’은 ‘순응, 겸손함, 온화함’과 같은 태도들로, 누군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성폭력 현장에서 물리적 대항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 소리를 지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피해 이후에도 수치심 때문에 타인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어떤 여성이 성폭력 피해 이후에 가해자에게 화를 내고 맞서 싸우고 금전적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했다면 그 여성은 ‘순수한 피해자’가 아닌 한 남성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동을 취하는 것(꽃뱀)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젠더 고정관념은 여성에 대한 혐오로도 이어집니다. 신체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여성을 ‘성폭력을 유발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성폭력 발생 배경을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행실 문제로 왜곡합니다. ‘이상적인(정숙하고 순결한) 여성다움’을 위반하는 여성은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여성다움’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여성으로써 최악의 경험을 한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으로도 이어집니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고 문제제기 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성폭력에 대해 접하는 정보는 언론을 통해 노출된 일부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언론에서 재현하는 성폭력피해자는 매우 무기력하고 불쌍하며 고통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여성이라면 평생 고통스

럽게 살아갈 것이라는 통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자신과 먼, 다른, 이례적인 존재로 여기고 동정(혹은 비난)의 대상으로 구별 지으며, 성폭력피해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각자의 구체적인 얼굴과 개성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젠더감수성교육은 교육 참여자들이 성폭력의 발생원인을 한국사회의 젠더, 즉 젠더 고정관념, 성 역할과 성 인식, 성 문화에서 찾고 해석해보는 과정을 통해, ‘젠더’를 이해하고 젠더감수성을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 성찰과 개개인의 역할 나눔입니다. 개개인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점검하는 일, 일상의 성 문화를 돌아보는 일, 바로 젠더감수성을 돌아보는 일에서 성폭력예방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4. 젠더감수성교육은 열린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더 나은 공동체를 꿈꿉니다.

현재 성과 성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에 비하여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과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성폭력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관도 적습니다. 성과 성폭력에 대한 논의의 장이 좁을수록 사람들의 편견은 단단해지고, 그 편견으로 인해 성폭력 문제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성폭력피해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우리 사회에서 유지, 재생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성폭력 문화 확산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성의식 점검을 기반으로 반성폭력 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젠더감수성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젠더 관련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입장과 경험에 매몰되지 않고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 맺기 태도인데, 이것은 불편함(이질감)을 감수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적극적인 자기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젠더를 둘러싼 차별과 권력관계를 성찰하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에게 낯설고 불편한 것도 과감히 수용하는 시민의식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젠더감수성을 기른다는 것은 일상을 바꾸는 연습,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한국사회의 젠더 이슈를 다르게/낯설게 보는 훈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5. 젠더감수성교육 강사의 약속

젠더감수성교육 강사로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젠더감수성을 돌아보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 성별규범, 즉 성별의 구분과 그에 따른 고정관념, 그에 따라 요구되는 삶의 방식부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젠더감수성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강사로서 유의할 점을 읽어봅시다.

### ● 젠더감수성교육 강사로서 나를 점검하기

나의 사회적 위치를 점검해보고 내가 가진 특권에 대하여 생각해봅니다.

- 다음의 각 항목들에 해당하는 나의 조건들을 적어보고, 다음 그림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표시해봅시다.

- 아래 그림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와 상황들의 내용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특권적 위치가 되거나 차별받는 위치가 됨을 말해줍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조건들로 어떤 경우에는 차별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특권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내가 가진 특권이 많을 경우 타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차별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차별받는 위치의 사람들이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사전에 정보를 습득하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나의 성별은? \_\_\_\_\_

나의 성 정체성은? \_\_\_\_\_

나의 나이는? \_\_\_\_\_

나의 국적은? \_\_\_\_\_

나의 장애 여부는? \_\_\_\_\_

나의 교육 수준은?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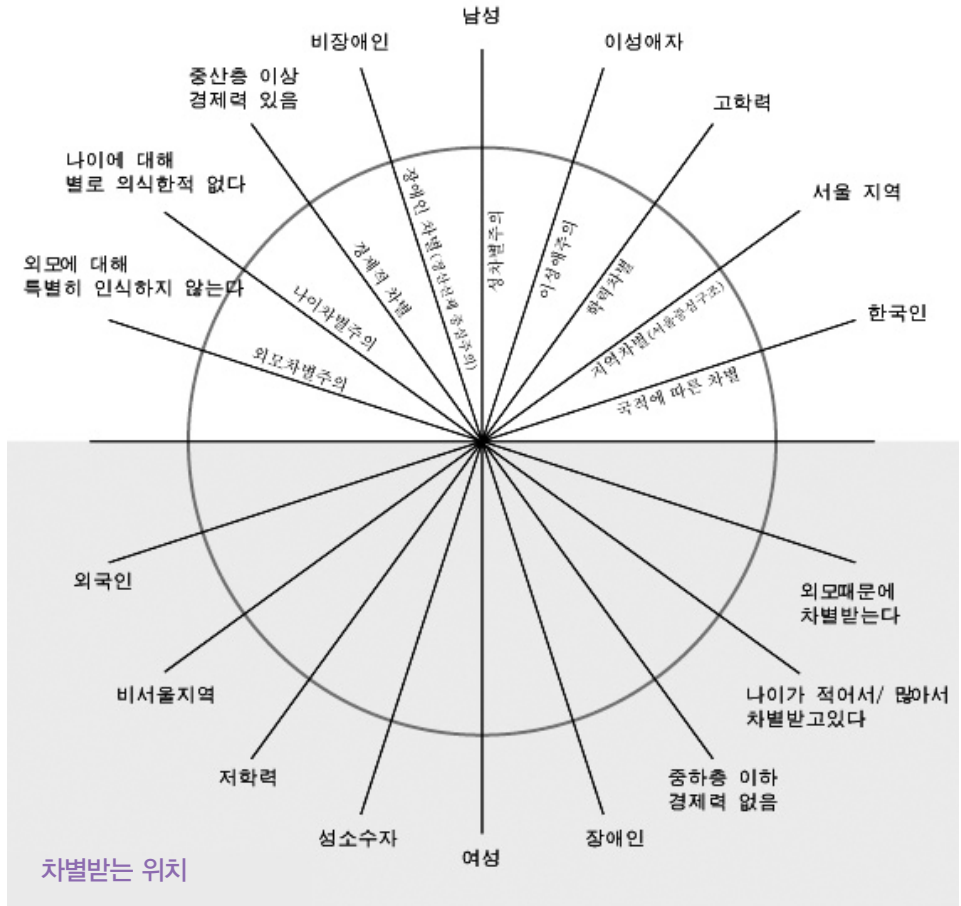
나의 출신 지역/거주 지역은? \_\_\_\_\_

나의 경제적 수준은? \_\_\_\_\_

나의 외모는? \_\_\_\_\_

나의 직업/ 고용 형태는? \_\_\_\_\_

## 특권적 위치



출처 : [성폭력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 나의 젠더감수성을 점검해봅시다.

- 젠더감수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참여자들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젠더 이슈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강사는 이 과정에서 교육 참여자들이 젠더감수성을 이해하도록 도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강사는 교육 시작 전, 본 책 1강의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로 나의 젠더감수성을 점검해 봅니다.

## ● 교육 과정에서 젠더감수성을 실천하기

- 성별 고정관념이 함의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ex. ‘여성들이 많이 오셔서 분위기가 환하네요.’, ‘남자가 제때하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하는 것은 아줌마들의 특징입니다.’, ‘남성분들이 책상을 옮겨주세요.’)

-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ex. ‘다들 예뻐서서 다이어트 안 해도 되겠어요.’, ‘자기관리를 잘 하는 사람으 뚱뚱하지 않죠.’, ‘많이 바쁘셨는지 회장을 안 하고 오셨네요.’)

- 그 외 나이, 인종, 장애, 직업, 학력, 혼인 여부 등을 기준으로 차별 또는 통념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ex. ‘나이순으로 조장을 뽑아주세요.’, ‘결혼하면 남편에게 사랑받겠네요.’, ‘남자친구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결혼하셨죠?’, ‘○○시는 이주노동자가 많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 함께하는 활동 과정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경험 등 사적 정보에 관한 내용 발표 여부는 교육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강사의 위치를 되새기기

- 보편적 개념들(ex. 연애, 결혼, 사랑, 가족, 국가, 민족)에 대하여 젠더감수성으로 재해석하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 평소에 사용하는 성차별 언어를 생각해봅니다. 특히 ‘여자답게’ 또는 ‘남자답게’ 라는 말이 성차별의 한 단면이며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압니다.

- 교육 참여자들이 ‘성폭력’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나와 내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상상력을 갖도록 조력합니다.



**젠더감수성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읽을 만한 책과 볼만한 영화를 소개합니다.**

✳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어렵다면 함께 읽어봅니다.

-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수전 웬델, 강진영 · 김은정 · 황지성 역, 그린비, 2013
- 『성의 정치 성의 권리』, 권김현영 외, 자음과모음, 2012
- 『남성성과 젠더』, 권김현영 외, 자음과모음, 2011
-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퀴어이론연구모임WIG, 사람생각, 2008
- 『섹슈얼리티 강의 I』, 한국성폭력상담소 저, 동녘, 2006
-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 변혜정 역음,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동녘, 2006

✳ 성폭력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이야기들을 풀어봅니다.

- 『보통의 경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매진, 2011
- 『성폭력에 맞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한울, 2009
- 『아주 특별한 용기: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영혼의 치유』 [개정판]  
앨런 베스, 로라 데이비스 지음, 이경미 옮김, 동녘, 2012
-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어느 성폭력 생존자의 빛나는 치유 일기』, 은수연, 이매진

✳ 평등은 셀프라는 사실! 숨어있는 차별과 혐오를 찾아봅니다.

-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인권운동사랑방, 도서출판 오월의봄, 2013  
별별상담(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비출판 자료)
-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2012

✳ 십대의 성은 어렵다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거침없는 아이, 난감한 어른』,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김백애라 · 정정희, 문학동네, 2011
-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변혜정 외,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기획, 동녘, 2010  
<간지들의 하루>, 2012, 이숙경

✳ 가 볼만한 사이트

- 서울국제여성영화제(아카이브 보라) [www.wffis.or.kr](http://www.wffis.or.kr)
-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http://queerarchive.org>
-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
- 한국여성학회 [www.kaws.or.kr](http://www.kaws.or.kr)

- 본 책을 활용한 교육의 예상 참여인원은 10명~30명 내외입니다. 소수 그룹이 모여 참여식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경우 인원과 시간을 고려하여 강의내용을 조정합니다.
- 함께 하는 활동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교육 참여집단의 특성에 맞게 전개1에서 전개3의 내용 중 심화할 부분을 중점으로 운영합니다.
- 교육 시작 전에 '젠더 감수성교육 참여자의 약속'을 안내지로 배부하여 교육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에 배려하며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젠더감수성교육 참여자의 약속

---

하나. 젠더감수성교육은 소규모 토론식 프로그램입니다. 활기찬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둘. 강사를 비롯하여,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셋. 프로그램 과정에서 알게된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는 교육 외 공간에서 나누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넷. 젠더감수성교육은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끝난 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 교육에서 받은 메시지를 실천하도록 노력합니다.

- 교육 참여집단이 구성되었다면 1강부터 7강까지 전체 강의를 모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매뉴얼의 각 장을 바탕으로 하나의 주제를 결정하여 교육을 기획하거나, 교육 참여집단의 욕구가 매우 구체적인 데 반하여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조합된 강의 구성으로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 1강 ‘젠더감수성으로 다시 보는 나’는 교육 참여자들이 자신의 젠더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2강 ‘너와 나의 차이, 우리가 함께 만드는 평등’은 젠더와 사회적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강과 2강은 기본적인 젠더감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므로 3,4,5,6,7강 별도 진행시 1강 또는 2강을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 주제 및 대상(예시)	교육 구성
조직 내 젠더감수성교육/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1강 2강 6강
대학생 젠더감수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1강 2강 3강 7강
교사/부모 젠더감수성교육/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1강 2강 4강 5강
지역주민 젠더감수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1강 2강 4강 7강



나의 젠더감수성 돌아보기

## 젠더감수성으로 다시 보는 나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성별을 의식한 순간이 있었나요?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대방이 '여성인가' 혹은 '남성인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다른 관계 맺기는 다양한 사회 현상과도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현상들에 숨겨진 성별의 의미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성폭력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지, 왜 여성 노동자의 승진이 제한되는지, 왜 여성에게 성형수술이 더욱 보편적인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드러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의식 곳곳에 숨어있는 '성'에 대한 감수성들이 이 사회를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것을 '젠더감수성'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젠더감수성은 인간관계를 비롯하여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 참여자들의 젠더감수성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별 고정관념이 강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봅니다.

### ● 강의 주제

- 젠더감수성으로 나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고 젠더감수성이 높은 삶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해본다.

### ● 강의 목표

- 젠더감수성을 이해한다.
- 나의 젠더감수성을 돌아본다.

### ● 강의 대상 및 활용

- 공동체 성폭력예방교육, 성평등 교육, 대학생 성인지 교육, 공무원 성인지감수성 교육

### ● 강의 환경

- 동영상 및 시각자료 시청 가능
- 모둠 작업 가능

### ● 강의 소요시간

- 90분

### ● 강의 지침

- 강의 전 교육 참여자들에게 젠더, 성폭력, 성평등 관련 교육 경험 여부를 묻고 교육 참여자들 간의 사전 정보 편차를 파악한다.
- 교육 과정에서 개개인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 강의 요약

단계	목표	핵심 메시지	준비물	소요시간
도입	인사 나누기 강의 주제 소개하기	나는 성별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날말카드	20분
전개 1	나의 젠더감수성 점검하기	나는 성별 고정관념이 강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활동지 필기도구	15분
전개 2	젠더감수성으로 세상 보기	젠더감수성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가는 데 큰 영향을 준다.	활동지 필기도구	40분
맺음	나의 젠더감수성 다시 보기	젠더감수성은 나와 나의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	15분

● 도입

인사 나누기, 강의 주제 소개하기

● 핵심 메시지

나는 성별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강사는 자신을 소개하며 교육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교육 참여자들이 성과 관련된 사회 이슈들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고 함께 이야기할 것임을 설명한다.

**1**

강사는 이번 강의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이야기해보면서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성에 관한 인식을 점검해보는 것임을 안내한다.

교육 과정에서 교육 참여자들이 함께 지킬 약속을 담은 안내지를 배부하고 내용을 함께 읽는다.

**2**

교육 참여자들이 각자 자기소개를 하도록 제안한다. 이때 교육 참여자들이 젠더(성평등, 성차별, 성폭력, 성소수자, 성매매 등 관련 주제 포함)에 대하여 평소 갖고 있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자기소개 전에 젠더감수성과 관련된 제시어 카드를 각자 1장씩 뽑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 참여자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각자의 카드를 소개하며 젠더감수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보도록 한다.

〈낱말 카드 예시〉

강사는 이와 같은 단어 카드를 참여자 수에 맞춰서 준비한다. 단어 카드는 성평등, 성차별, 성폭력, 여성혐오와 같은 개념어나 교육 시기에 이슈가 된 신문기사나 사회현상으로 한다.

젠더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젠더감수성을 돌아보게 하는 말

## 성매매

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젠더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젠더감수성을 돌아보게 하는 말

## 된장녀 vs 고추장남

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젠더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젠더감수성을 돌아보게 하는 말

## 십대의 연애

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젠더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젠더감수성을 돌아보게 하는 말

## 성폭력피해자

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 3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의 자기소개와 발표 결과를 정리한다. 우리는 성별, 지역, 학력, 종교, 살아온 경험과 현재의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각자 다른 젠더감수성을 갖게 됨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교육 참여자들이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자기소개와 함께 발표된 내용들은 강사가 갈무리하여, 교육 참여자들 간에 생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야기한다. 또한 교육 참여자들의 발언에서 나타난 차별과 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점검하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젠더감수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며 도입을 마무리한다.

젠더와 젠더감수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이전에 강사는 젠더 개념에 대한 읽기자료들을 참고하여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교육 참여자들에게 젠더의 개념을 설명할 때,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이고 젠더는 사회적인 성이다'로 정의하여 설명하지 않고, 교육 참여자들이 젠더를 계급, 계층, 인종 등과 같은 나의 사회요소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젠더는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다른 사회요소들과 얽혀서 존재하고, 젠더와 다른 사회요소가 얽혀서 다양한 사회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젠더는 사회요소로서 고려되기보다 자연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사회현상을 분석할 때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2) 젠더감수성은 젠더와 다른 사회요소가 얽혀서 만들어낸 다양한 사회현상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재해석하는 감수성이며, 한 사회의 성별화된 구조와 담론들을 감지하는 감수성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젠더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차별과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다.

3) 젠더감수성교육의 핵심은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성폭력, 성매매, 성 문화, 여성혐오, 성차별 등 젠더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들과 그 밖의 문제들을 근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다시 점검해보게 만드는 것이다.

강사는 이와 같은 설명과 함께, 일상이나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들어 교육 참여자들이 젠더감수성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나의 젠더감수성 점검하기

● 핵심 메시지

나는 성별 고정관념이 강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 1

〈함께 하는 활동 ① 나의 젠더감수성을 알아보자!〉 활동지를 교육 참여자들에게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제안한다. 채점 방법을 안내해 점수를 합산하게 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의 젠더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1) 본 과정에서 교육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별 고정관념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성별 고정관념은 한 사회의 성별규범을 반영하며 체크리스트의 각 질문들은 성별규범들이 가져오는 차별의 문제를 나타냄을 설명한다. 〈함께 하는 활동 ① 나의 젠더감수성을 알아보자!〉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는 한국사회 대표적인 성별 고정관념과 통념들을 담고 있으며, 연애, 여성성과 남성성, 신체노출, 여성혐오, 결혼이주, 성욕, 낙태, 성폭력, 성매매, 가족, 십대, 동성애, 뽕뽕한 몸 등 젠더를 둘러싼 이슈들에 대한 교육 참여자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강사는 이 활동을 통해서 교육 참여자들이 평소 성별규범에 근거하여 갖고 있던 생각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과정은 전개 2에서 이어진다.


매우그렇다 0점, 그렇다 1점, 보통이다 2점, 아니다 3점, 매우 아니다 4점으로 점수를 체크하여 합산합니다.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30점 이하** 당신의 젠더감수성지수는 매우 위험합니다. 주변의 성폭력피해자에게 나도 모르게 편견에 가득한 말로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젠더감수성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40점 이하** 이제 막 젠더감수성의 감을 잡게 된 당신! 젠더감수성이 충만한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군요. 지금 바로 젠더감수성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59점 이하** 정말 멋진 당신! 하지만 아직 깨지지 않는 편견들이 있으시다고요? 완전 멋진 나에게 있는 단 하나의 결점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젠더감수성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60점** 젠더감수성 없는 성문화 통념에 NO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당신은 젠더감수성 마스터!

 함께 하는 활동 ① 나의 젠더감수성을 알아보자!

다음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로 나의 젠더감수성을 점검해보세요.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애인에게 화가 날 때 나의 불만을 말하기보다 참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2	남성은 남성의 역할을, 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잘 수행하 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이다					
3	'민폐녀', '진상녀' 등 00녀의 등장은 한국 여성들의 도 덕적 해이 때문이다					
4	배우자가 없는 남성들을 위한 국제결혼 사업은 불가피 하다					
5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여성은 성관계에 대해서도 개방 적일 것이다					
6	여성은 남성보다 성욕이 적다					
7	키스 등 스킨십을 하기 전에 상대의 의사를 물으면 분위 기만 깎일 뿐이다					
8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중절을 경험했다면 약혼자에 게 말하는 편이 옳다					
9	성폭력은 여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 이다					
10	성폭력 가해자는 전과자이거나 사회부적응자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11	“몸매 좋은데” 정도의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다					
12	성매매가 금지될수록 성폭력은 증가할 것이다					
13	비(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은 불완전한 가족이다.					
14	십대의 동성애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15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은 건강하게 자기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비난받는 것이다					

〈채점방법〉

## 젠더감수성으로 세상보기

● 핵심 메시지

젠더감수성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가는 데 큰 영향을 준다.

본 과정은 <함께 하는 활동 ① 나의 젠더감수성을 알아보자!>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의 문항들이 갖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참여자들이 5인 내외로 모둠을 구성하여 모둠별로 질문지 문항의 답을 토론하여 도출하고 그 내용을 <함께 하는 활동 ② 열다섯 가지 이야기로 찾아보는 젠더감수성> 활동지에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 작성하도록 한다. 강사는 모둠별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육 참여자들이 각 문항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거나 연상되는 관련 사건이 있을 때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도록 독려한다.

### 1

첫 번째 이야기 ‘열다섯 가지 이슈 찾기’에서 강사는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 문항 속에 ‘연애, 여성성과 남성성(이분화된 성역할과 성규범), 신체노출, 여성혐오, 결혼이주, 성육, 낙태, 성폭력, 성매매, 가족, 십대, 동성애, 똥똥한 몸’ 이슈들이 담겨있음을 설명한다.

### 2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만들어가는 젠더감수성 지도’는 강사가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의 정답을 설명하기 전에 교육 참여자 스스로 각 문항별 사회적 이슈와 성별규범을 찾아보고 해당 이슈를 섬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젠더감수성을 찾아보는 과정이다. 모둠작업이 끝나면 각 모둠별로 발표한다.



## ② 열다섯 가지 이야기로 찾아보는 젠더감수성

### 첫 번째 이야기. 열다섯 가지 이슈 찾기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의 문항에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담겨있나요? 사회적인 이슈는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ex. 2번 질문은 성역할을 말하는 것 같다. 평소에 여성이라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 일단 남자 동기들보다 취직이 어렵다. 성역할 같은 게 없으면 남자아이들과 나를 똑같이 볼 것 같다. ...)

###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만들어가는 젠더감수성 지도

체크리스트에서 각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질문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른 참여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보태면서 이해를 돕습니다. 우리가 찾은 지혜들로 젠더감수성 지도를 만들어봅시다.

이름	어떤 질문의 답을 찾고 있나요?	조력자들의 힌트	우리가 찾은 젠더감수성 지도는 무엇인가요?
지나	여성분은 남성보다 성욕이 적다	A: 남성들이 성욕이 더 많다는 건 허구 같다. B: 오히려 그 말이 남자에게겐 스트레스다.	성욕은 개인차이 아닌가? 여성의 성욕에 대한 이야기도 사회적으로 많이 해보자.

### 3

강사는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 각 문항의 의미를 아래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 1. 애인에게 화가 날 때 나의 불만을 말하기보다 참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애인이나 배우자 사이에서는 화가 나도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는 말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누적되다보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호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일방적인 의사소통방식 중 대표적인 것이 폭력이다. 애정이나 우정을 기반에 둔 관계일수록 더욱 각자의 감정이나 문제들을 잘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애인이나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참는다는 것은 성별화된(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되는 행동양식이 다른) 태도이며, 참고 있던 화를 표출하는 방법 역시 성별화 되어있다. 예컨대 여성이 가족 내 발생한 갈등을 '참는' 행동은 현명함,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미덕으로 여겨지고, 남성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물리적인 폭력 등 위해를 가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거나 교정하는 행위'라고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고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에서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요구를 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 2. 남성은 남성의 역할을, 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한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역할이나 여성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므로 고정불변의 것, 즉 진리가 아니다. 성별 고정관념이 강하고 이에 따른 성 역할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사회일수록 사회 구성원들의 성장과 가치관도 통제된다. 사회 구성원들이 남성다움/여성다움에 갇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또한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 역할 기대가 폭력과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후 심야 귀가길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을 사람들이 비난한다면 그 이유는 '밤늦게 돌아다니기'는 여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 3. '민폐녀', '진상녀' 등 00녀의 등장은 한국 여성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00녀' 단어의 등장은 여성혐오 문화와 관계가 있다.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 타인에게 예의 없고 공손함과 친절함이 없는 여성 등이 주로 이와 같은 사이버폭력의 대상이 된다. 여성을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 그 여성의 신상정보 등이 급속도로 유포되어 '00녀'로 이름 붙여지고 비난받게 된다. 이는 유독 여성에게 더욱 윤리적 일 것을 강요하고, 정숙하거나 수동적으로 살아갈 것을 권유하는 사회분위기에서 나온 현상이기도 하다.

#### 4. 배우자가 없는 남성들을 위한 국제결혼 사업은 불가피하다.

농어촌지역 등 일부 지자체는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 단체

맞선과 같은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두고 한국 남성의 사기결혼, 가정폭력,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문제, 인종차별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지지체가 나서서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원하지만 직업이나 거주지 등 공통된 이유로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맞선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적 해결을 꾀할 수 없다. 무엇보다 당사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 (결혼을 통한 가족구성이 사회경제적 계급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국제결혼 사업은 소외지역 남성들이 결혼을 통해 획득하지 못하는 '남성성'을 사회가 복원해주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남성중심적인 사회와 문화들에 대하여 고민해볼 수 있다. 또한 이성애적 법률혼 중심의 가족제도와 혈연관계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녀출산과 양육, 개인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

### 5.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여성은 성관계에 대해서도 개방적일 것이다.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은 정숙함과 순결함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서 충분한 성적 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또 다른 사회적 요구가 존재한다. 때문에 여성의 의상과 신체노출은 언제나 성 규범과 요구 사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다. 또한 외모꾸미기는 여성들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잣대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 여성의 당시 옷차림새를 무죄 추정의 근거로 제시하며 성폭력 2차피해의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여성은 성관계에 개방적일 것이라는 편견은 여성의 성폭력 경험을 부정하거나 성폭력 피해가 아닌 것으로 왜곡한다.) 한 여성의 옷차림과 신체노출이 그 여성의 가치관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6. 여성은 남성보다 성욕이 적다.

성욕은 사람마다 다르며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여성의 성욕은 없거나 억제해야 하며 남성의 성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거나 남성은 성욕을 제어할 수 없다는 성 인식은 잘못된 편견이다. 특히 성폭력은 가해자-피해자 간의 권력 차이가 주요 발생원인임에도 '남성이 성욕을 조절하지 못한 실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을 사회적 인 문제가 아닌 개인 간의 사적인 성적 행동으로 왜곡하고 축소하므로 문제적이다. 남자의 성욕이 더 강하다는 말은 언뜻 보면 단지 여성과 남성을 비교할 것일 뿐, 성폭력과는 무관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성욕을 폭력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편견 중 하나이다. 여성과 남성의 성욕의 차이에 대한 과장된 생각은 성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성별규범이 강한 사회일수록 설득력을 갖는다.

### 7. 키스 등 스킨십을 하기 전에 상대의 의사를 물으면 분위기만 깎 뿐이다.

스킨십 등 성적 행동에 대한 상호 간의 동의는 중요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상대도 원할 것이다'는 짐작은 상호적이고 평등한 연애관계를 만드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자신 또는 두 사람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성적 행동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일방적으로 성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반드시 언어적 형태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에 대한 두

사람의 약속이 필요하다. 애인이나 배우자와 성관계 등 성적 행동을 할 때 서로의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관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8.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중절을 경험했다면 약혼자에게 말하는 편이 좋다.

여성의 임신중절 경험이 혼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성적경험이 여성 개인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여성의 몸이 남성-파트너가 점유하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중절은 임신 과정에 참여한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말하기 어려운 사적 경험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

#### 9. 성폭력은 여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사회는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여성을 무기력하게만 재현하며, '성폭력은 여성에게 있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 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폭력피해 경험은 피해자 개인의 가치관, 생애경험, 주변의 대응과 지지 등에 따라서 성폭력 행위의 내용에 상관없이 다른 무게감을 갖는다.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여성을 향한 지나치게 온정적인 시선이나 낙인찍기가 성폭력피해자가 느끼기에 성폭력 경험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문제일 때도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경험에 대해 말했을 때 주변인들이 경청하고 지지하는 것은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10. 성폭력 가해자는 전과자이거나 사회부적응자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언론은 성폭력가해자를 '악마, 사이코패스, 짐승' 등의 수식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가해자는 전과가 있거나, 정신 병력이 있거나, 사회부적응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폭력가해자 대다수는 피해자와 알고 있던 관계이고, 애인이나 배우자,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 피해자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이며 전과나 병력과 무관한 경우가 더 많다. '성폭력가해자는 000일 것이다'와 같은 생각은 일상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사소하게 여기게 하거나 문제제기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나이, 체격, 힘 등 여러 면에서 권력이 적은 아동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아동성폭력 가해자를 '소아기호증 환자'로 여기는 것은 성폭력을 권력의 문제이기보다 성욕에 근거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으로, 현실과 거리가 있다.

#### 11. “몸매 좋은데” 정도의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다.

같은 말이라도 관계와 상황의 맥락에 따라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농담 등 성적 함의를 담은 말을 할 때는 타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친한 친구에게 약속장소에서 '몸매 좋은데'라는 말을 듣는 것과 직장상사에게 직장에서 '몸매 좋은데'라는 말을 듣는 것은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매우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만약 조직 내에서 이와 유사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면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은 말한 사람의 의도보다는 청자가 성희롱으로 느낀 이유를 경청하고 존중하여 조직 내 성 문화를 개선하는 데 반영하여야 한다.



## 12. 성매매가 금지될수록 성폭력은 증가할 것이다.

성매매 합법화가 성폭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성매매가 금지되면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 저변에는 남성의 성욕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방식으로라도) 해소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과, 성판매 여성과 구별되는 '순결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식의 성판매 여성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다. 2012년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성폭력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의원실, 성폭력과 성매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발표 언론보도 인용). 성매매가 대부분 여성 성판매자와 남성 성구매자 구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성매매는 젠더 문제로 보아야 하며, 성판매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 13. 비(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은 불완전한 가족이다.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여기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이혼·사별·비혼부모로 인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생활가족, 그룹홈, 위탁가정, 동성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는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한 가족으로 여겨진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은 전체 가족의 54%이며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이다. 서울시의 경우 일인가구의 비율이 30년 동안 10배 가까이 증가되는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가 심화되고 있다([서울 '나홀로 가구' 30년새 10배 늘어], 세계일보, 2013년 10월 23일). 특히 일인가구 수가 늘면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복지 정책이 요구되는 추세에서 '정상가족'이란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 14. 십대의 동성애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십대의 동성애를 성장기의 일시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동성애 혐오, 그리고 십대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주체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십대가 자기의 여러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라면 성 정체성도 고민해볼 수 있는 주제이다.

동성애 혐오가 깊은 사회일수록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것 외의 다른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어려워 십대 성소수자가 고립될 수 있고, 동성애 혐오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교육은 십대 성소수자의 성장과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 십대 성소수자는 동성애혐오로 인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 십대 성소수자들에 대한 아웃팅과 집단테러(왕따, 폭력, 성폭력 등)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이 성소수자를 표적으로 폄하, 혐오하는 신문광고를 제작하거나 집회를 열고 있다. 성소수자 이슈는 누군가의 판단에 근거한 '허락, 이해, 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 15.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은 건강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비난받는 것이다.

비만이나 과체중은 의료적으로 '건강'과 연결될 수 있지만, 다른 질병이나 몸의 징후들과 달리 비난의 대상이 된다. 각자 체형과 체질이 다르므로 '건강한 몸'을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데도 마른 몸을 중심으로 과체중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

듯 ‘비만’에 강력하게 덧입혀진 부정적 이미지는, 마른 몸을 선호하는 사회문화의 영향이다. 불과 몇 십 년 전에 여성의 마른 몸은 가난과 궁핍을 연상하게 했고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려본다면 이상적인 몸의 기준은 사회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 비만이 남성 비만보다 주목받고 비난받는 현실도 주목해야 한다.

1)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 설명 과정에서 강사는 젠더와 긴밀한 사회현상은 성차별, 성폭력만이 아니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설명한다. 한 주 동안 맺었던 관계, 주변사람들과 나눈 대화 등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젠더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깨달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때 한국사회의 성차별 지수 같은 객관적인 수치를 함께 보여주거나 외국의 사례를 담은 언론보도를 함께 참고하여 설명하는 것은 보다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체크리스트에 담긴 이슈들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통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사이트(<http://gsis.kwdi.re.kr>) 등 이용, 신문기사 예시: [스웨덴, 성별균형 영화등급 도입], 여성신문, 2013년 11월 17일).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 문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역차별 논란이나 여성혐오 문화와 관련한 내용은 교육 참여자들의 의견이 가장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는 주제이다. 역차별 논란과 여성혐오 문화(군 가산점제 논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여성운전자 조롱 등)는 성폭력, 성차별 문제와 관련 있음을 설명하고 교육 참여자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 다른 교육을 통해 젠더 이슈를 접해본 경험이 있거나 젠더감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교육이 빨리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 <함께 하는 활동② 열다섯 가지 이야기로 찾아보는 젠더감수성>의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만들어가는 젠더감수성 지도’ 과정에 시간을 더욱 배분하고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 문항별 설명에 집중한다. 강사가 별도의 활동지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교육 참여자들에게 요청하여 교육 참여자들이 지난 1주일간 사용한 젠더를 둘러싼 언어나 행동을 적어보게 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젠더감수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적절한 것이다. 어떤 상황을 두고 ‘여자가 ~ 하면 안/된다, 남자가 ~ 하면 안/된다’는 표현을 하는 것, 여성이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다이어트 하니?’라고 물어보는 것, 계단을 오를 때 여성이 치마 밑단을 가리는 행동,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다리를 모으고 앉는 행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맺음


나의 젠더감수성 다시 보기

● 핵심 메시지

젠더감수성은 나와 나의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1

<함께 하는 활동 ③ 새롭게 발견한 나의 젠더감수성>을 통해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을 정리하고 소감을 나누도록 한다.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 과정에서 젠더에 대하여 새롭게 하게 된 생각(ex. '평소에 남성이 내 물건을 들려 하는 것이 싫었는데,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험하는 불필요한 배려였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모둠작업을 통해 함께 공유한 젠더감수성을 활동지에 작성하고 발표하게 한다.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의 발표를 들으며 그 내용을 칠판에 적어 공유한다. 그리고 발표가 모두 끝나면 발표내용을 오늘 새롭게 발견한 우리 안의 젠더감수성으로 언급하면서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 이후 일상에서도 젠더감수성을 높이며 실천해나갈 것을 독려한다.

 함께 하는 활동 ③ 새롭게 발견한 나의 젠더감수성

오늘 나는 내 안의 젠더감수성을 발견했다.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나의 젠더감수성은

.....

.....이다.

오늘 나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젠더감수성을 나누었다.  
 우리가 나누는 젠더감수성은

.....

.....이다.



## 강의 중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 Q 젠더감수성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A 우리 주변 곳곳에 깔려있는 사회 문화들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당연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감수성이라고 설명한다. 나이에 대한 감수성, 경제 계급에 대한 감수성, 지역에 대한 감수성, 장애에 대한 감수성, 위계에 대한 감수성, 00에 대한 감수성 등 셀 수 없이 많이 이름 붙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젠더감수성은 성별 뿐 아니라 다양한 차이에 대한 감수성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키 160 이상의 용모 단정한 미혼 여성', '너 얼굴 보니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등, 우리가 흔히 들어온 이런 말들은 장애인, 기혼여성, 외모 자원을 갖추지 않은 여성에 대한 비난을 담은 차별의 표현이자 젠더감수성이 결여된 폭력적인 표현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젠더감수성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차이에 대한 감수성'이며, 강자와 약자의 권력 차이에 대한 감수성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성별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많은 경우 강자는 남성, 약자는 여성이라고 설명한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 역할, 통념,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것이 젠더감수성의 출발이라고 설명한다. 나에게 익숙했던 것에 하나씩 의문을 갖는 것부터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실천이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드라마나 영화 속 인물들의 성별에 따른 특성 파악해보기, 우리 직장의 성 문화 생각해보기 등 평소에 하지 않던 질문들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다고 제안한다. 젠더감수성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젠더 관련 교육 과정에 참여하거나 성 문화를 다룬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다고 추천한다.

### 관련자료

#### \* 책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 교양인, 2013(개정증보판)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우에도 치즈코,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2012

『언니네 방2』 언니네사람들, 갈리온, 2007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 변혜정 엮음,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동녘, 2006

『또 하나의 문화 9호: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또 하나의 문화, 1992

#### \* 관련 홈페이지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http://family-b.net>)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gsis.kwdi.re.kr>)

#### \*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 조세영, 2013, 82분, 다큐멘터리

〈오버 더 힐 Over the hill〉, 서니 베르히만, 2007, 60분, 다큐멘터리

젠더감수성으로  
나와 타인의 관계 돌아보기

## 너와 나의 차이, 우리가 함께 만드는 평등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의 하나는 성별입니다. 외모와 옷차림새, 몸가짐 등은 상대방의 성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성별에 따라 걸맞은 외형과 행동을 규정하는 '성별규범'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별규범은 '언니'나 '형'과 같은 호칭, 출입할 수 있는 공간, 양육 방식, 외모에 대한 평가기준과 꾸미기 방식 등에서 한 사람의 삶에 다양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인식되지 못합니다. 또한 성별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낙인찍히기도 하고,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 정체성이 때때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성별규범과 같등하기도 합니다. 가령 여성이지만 여성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 동성과 연인 또는 배우자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 등은 '비정상' 범주가 되어 인권을 침해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서로를 구별 짓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 또는 타인의 젠더나 섹슈얼리티에 대하여 유연한 생각을 갖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 강의는 젠더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돌아봄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 ● 강의 주제

- 젠더감수성으로 나와 타인의 관계를 돌아본다.

### ● 강의 목표

- 젠더·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사회규범을 이해한다.
- 타인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 ● 강의 대상 및 활용

- 성인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성인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

### ● 강의 환경

- 동영상 및 시각자료 시청 가능
- 모둠 작업 가능

### ● 강의 소요시간

- 60분

### ● 강의 지침

- 교육 참여자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사회규범과 함께 자신의 고정관념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강의 내용이므로, 강의 중 교육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할 때, 비난 또는 평가 받는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강 수업에 이어서 진행한다.

### ● 강의 요약

단계	목표	핵심메시지	준비물	소요시간
도입	인사 나누기 강의 주제 소개하기	성별규범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 짓는다.		10분
전개1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나의 생각 점검하기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성별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활동지, 필기도구	20분
전개2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차별상황 이해하기	젠더와 섹슈얼리티에는 다양한 차이와 차별이 존재한다.	활동지, 필기도구	20분
맺음	마무리하기	평등한 관계는 타인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으로 가능하다.		10분

● 도입

인사 나누기, 강의 주제 소개하기

● 핵심 메시지

성별규범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 짓는다.

강사는 자신을 소개하며 교육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간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공동체 구성원이 보다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모색해볼 것임을 설명한다.

**1**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이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 우선 교육 참여자들에게 '평균적인' 혹은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의 외모, 행동, 표현방법 등을 물어본다. 다음으로 그와 반대되는 여성과 남성의 외모, 행동 등을 물어본다. 그리고 다양한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진 사람들, 즉, 여성답지 않은 여성이나 남성답지 않은 남성에 대해 교육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이때 교육 참여자들이 활발하게 논의에 참여하도록 성소수자, 성매매, 비혼 등의 이슈를 가진 인물, 영화, 드라마를 담은 사진자료나 동영상 활용한다.

**2**

강사는 앞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별규범에 대해 설명한다. 성별규범은 '언니'나 '형'과 같은 호칭, 출입할 수 있는 공간, 양육 방식, 외모에 대한 평가기준과 꾸미기 방식 등에서 한 사람의 삶에 다양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인식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성별규범은 외모, 표현, 생김새가 여성답거나 남성다운지, 행동과 몸가짐이 충분히 여성답거나 남성다운지를 규정하며, 이 때문에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표현, 관계, 행위들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성별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비정상'으로 낙인찍히기도 하고, 나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조건들 역시 사회의 성별규범과 충돌하거나 갈등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 3

교육 과정에서 교육 참여자들이 함께 지킬 약속을 담은 안내지를 배부하고 내용을 함께 읽는다.

#### 더 알아보기 **섹슈얼리티**

섹슈얼리티란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인 감정과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섹슈얼리티란 사회 구성론적 관점에서 개념화한 것으로 성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들 내에서 모든 사회 관계들과의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개념을 말한다.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전망』,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동녘, 1999)

(생략) 섹슈얼리티는 성과 관련한 생각, 성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규범, 성적 지향(성정체성) 등을 의미하는, 성과 관계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는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 중심에 오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섹슈얼리티는 여성/남성이라는 성(성별)을 구분하는 범주이기보다는 인간의 고유하거나 또는 본질적인 성적 욕망이나 사회적으로 길러진 성적 태도나 성적 실천 등을 일컫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말로 동일하게 “성”으로 표현되는 성과 관련된 세 개의 다른 용어는 성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개념들이다. 즉, 개인은 섹스/젠더/섹슈얼리티의 조합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면서 사회적 성은 남성이고 성적 지향은 이성애로 개인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슈얼리티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 유형을 언급하거나 성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제도로써 이해된다. 따라서 인간의 성적 욕망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들과 성과 관련된 사회적 금기나 제도 등을 봄으로써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섹슈얼리티』, 『여/성이론』, 14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6)



● 전개 1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나의 생각 점검하기

● 핵심 메시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성별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1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이 5인 미만으로 모둠을 만들도록 한 뒤 각자에게 <함께 하는 활동 ① 생각의 좌표 그리기> 활동지를 나누어준다. 그리고 각자가 카드를 활동지의 좌표 모눈 위에 배치해보도록 한다. <함께 하는 활동 ①>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거나 혐오 또는 차별 받는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교육 참여자들의 생각을 점검해보기 위한 것이다. 강사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 참여자들에게 카드 중 설명이 필요한 단어가 있는지 묻고 설명한다. 낱말 카드는 교육 참여집단의 특성, 교육 시기의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2

교육 참여자들이 모둠 안에서 각자 좌표에 배치한 내용을 돌려보게 하고 공유하게 한다. 그리고 각자의 좌표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위치를 갖는 카드, 같은 위치를 갖는 카드를 짚아보고 그 이유를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한 뒤 모둠별로 발표하게 한다. 강사는 각 모둠별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고 교육 참여자들 간에는 각 낱말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달한다.

(※ 활동 시간을 충분히 배정할 수 있는 교육집단은 칠판이나 전지를 활용하여 모둠별 또는 전체 교육 참여자들이 함께 생각의 좌표를 만들고 발표해보도록 한다. 개별적으로 생각의 좌표를 만드는 작업은 각자의 생각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지만 교육 참여자들이 함께 생각의 좌표를 만드는 작업은 직장, 학교, 모임 등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교육에서 조직 내 성 인식의 차이를 점검해보는 효과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3

강사는 젠더·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비정상’과 그리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으며, 누군가 ‘비정상’으로 여기는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이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시대에 따라 ‘정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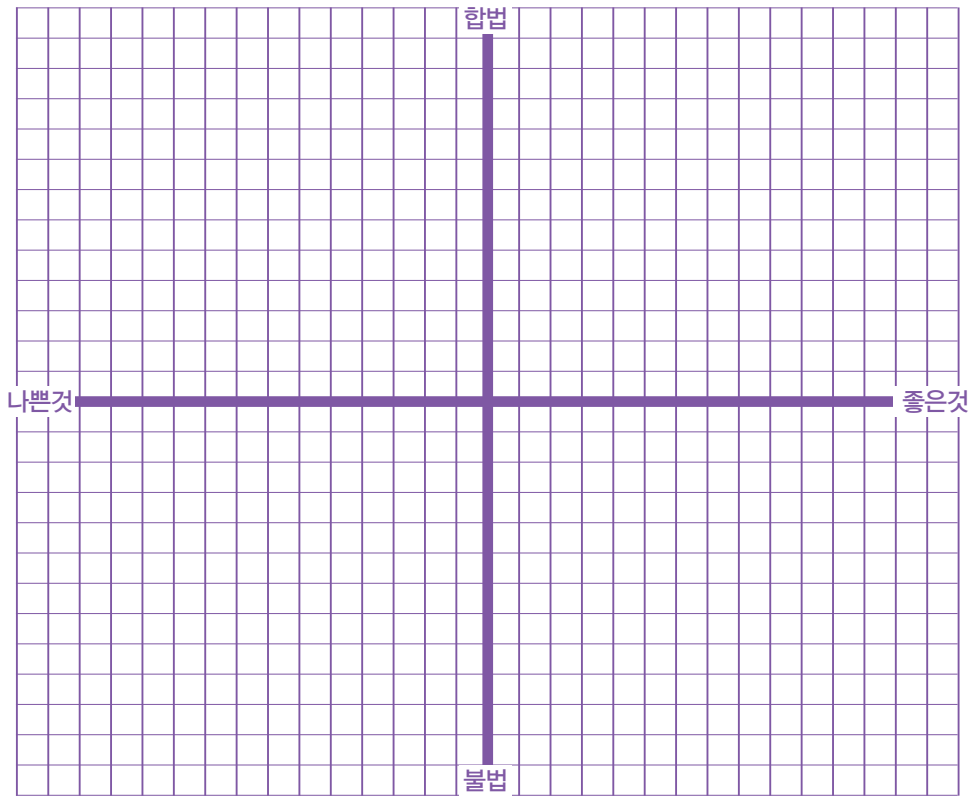


함께 하는 활동

① 생각의 좌표 그리기

다음 각 카드의 낱말들이 '합법', '불법',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 어디쯤에 위치해있을지 고민하여 좌표에 배치해봅시다.

성별정정	성구매	동성애	성판매
미(비)혼모	동성결혼	남장여자	비혼
십대연애	혼전동거	여장남자	십대임신



변해왔고, 문화권에 따라서도 다르며, 개인들의 가치관과 직간접적 경험에 따라서도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구별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한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 짓는 성별규범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시 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성별규범이 절대적이고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강사가 카드에 담긴 낱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는 다음을 활용한다.

1) 성별정정(법적으로 등록된 성별을 다르게 재지정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의 인권 문제와 맞닿아있다. 한국은 성기성형을 한 트랜스젠더만 법적으로 성별정정이 가능해, 개인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성기성형 수술을 해야만 자신의 성별 정체성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성기성형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으로 성별정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왔고, 2013년에는 성기성형을 하지 않아도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법원 "성기 성형 안했다고 '여 → 남' 불허는 기본권 침해"], 한겨레, 2013년 11월 20일).

## 더 알아보기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 ■ 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

자신의 성별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

### ■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인 끌림을 뜻하는 단어.

성적 지향성이라고도 한다. 이성애자·양성애자·동성애자 성적 지향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흔히 "성적 선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다. "선호"라는 것은 마치 담배를 선호한다는 것처럼 단지 현재 그것을 좀 더 좋아한다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동성애 또한 선호의 결과로 노력을 하면 바꿀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 지향은 생물학적 성(sex), 젠더 정체성, 사회적 성역할 등과도 구별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적 지향이 한 개인의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자신의 성적 지향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출처 :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성적소수자사전(<http://ksccr.org>) 2013년 11월 10일

Copyright (C)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2-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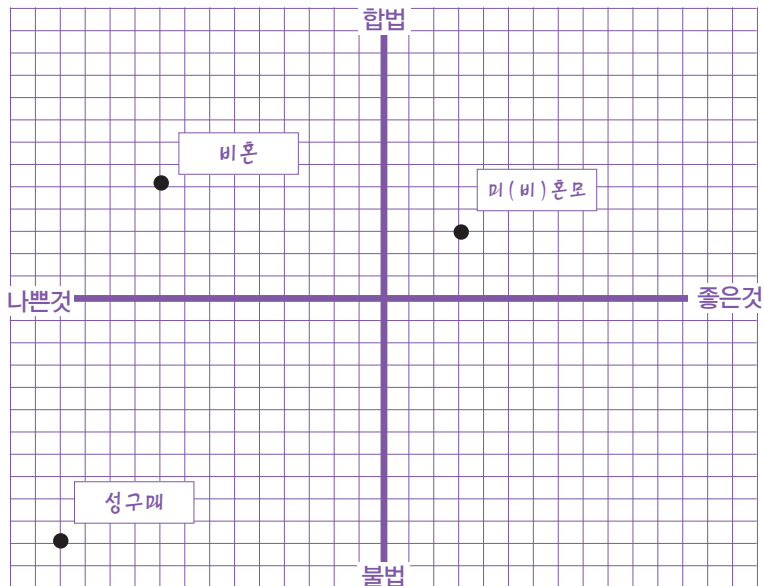
2) 성매매를 성구매와 성판매로 나누어 고민해보면서 성매매를 둘러싼 이중적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성구매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당연한 행동으로 회자되며 남성들의 성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편, 성판매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부정적인 성적 낙인은 성매매를 둘러싼 성별규범의 차이를 드러낸다. 성매매 산업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성판매 여성-성구매 남성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점에서 성매매 문제를 개인의 성적 일탈이나 선택이 아닌 여성의 인권 문제로 고민할 수 있다.

3) 남장여자와 여장남자는 성별규범을 논의해볼 수 있는 주제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남장여자 혹은 여장남자로 판단하는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토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십대연애, 십대임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십대의 성적 욕망을 ‘정상적인’ 성인의 것과 대비되는, 미성숙하고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십대를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십대는 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고민(성 행동, 성 정체성, 연애, 몸의 변화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못하게 되고, 다양한 성적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성 지식이나 정보(피임, 관계 맺기 태도, 성적 의사소통 등)를 놓치기도 한다.

5) 미혼모, 동성가족, 비혼, 혼전동거 등은 실제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주거/삶의 모습이다. 하지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혼·사별·비혼부모로 인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생활가족, 그룹홈, 위탁가정, 동성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는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생각의 좌표  
그리기 예시



© 한국성폭력상담소

## ● 전개 2

###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차별상황 이해하기

#### ● 핵심 메시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는 다양한 차이와 차별이 존재한다.

## 1

교육 참여자들 대부분은 성별규범이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표현을 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 즉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임신한 십대, 성매매여성 등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희박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를 ‘비정상’으로 여기는 한, 상대방을 무시, 격리, 증오, 추방할 뿐 평등한 관계맺음과 공생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타인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등한 관계를 맺는 태도를 훈련할 것임을 설명한다.

강사는 이를 위해 ‘비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이성’으로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거나, ‘이성’의 복장을 입는 사람, 혼인과 관계없이 임신/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는, 성별정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동성과 더욱 친밀하거나 동성과 평생 동거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상대방을 어떻게 판단하며,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는가를 생각해보게 한다.

## 2

강사는 <함께하는 활동② ‘있을 수 있는 일’>의 사례지를 교육 참여자들에게 제시한다. 참여자들이 함께 토론하며 해당 사례의 상황을 파악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공동체에 같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가능하면 모둠작업으로 진행하며, 전체 사례를 다루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 참여자 수와 시간을 고려하여 모둠별로 서로 다른 사례를 토론하도록 하고 토론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다.



팔호 안의 등장인물들의 입장과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해봅시다.

### 사례1 \_ 미용실에서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다가 (고객)과 (미용사)가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손님 은 ‘더 짧게 잘라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미용사는 ‘더 짧게는 못 잘라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이렇게 짧게 자르면 사연 있어 보이고 안 좋아요’ 라는 거지요. 여자가 숏컷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난감할까요?”

### 사례2 \_ 일터에서

“저의 회사 부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 팀장)이 있습니다. 어제 그 팀장과 같은 동네에 사는 (동료)가 저한테 와서 살짝 팀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저께 마트에 갔는데 팀장과 어떤 여성이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고 장을 보더라나요? 팀장이 아무래도 동성과 사귀는 사람, 레즈비언 같은데 자기는 팀장을 이제 쳐다볼 수도 없고 이직하고 싶으니 다른 팀장에게도 상 의해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 사례3 \_ 사회에서

“동창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평범한 회 사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선배)가 00지역의 룸살롱에 회식하러 갔다가 그곳 에서 일하는 그 친구를 목격했다는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날부터 선배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친구를 비난하는 투의 말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소문을 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친구의 직장이나 전공을 수군대는 동창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 느 날부터 친구는 동창회에 불참하는 횡수가 잦아졌고 이제 동창들과 잘 연락이 되지 않습니 다. 안타깝지만 그 친구와 연락을 하기는 꺼려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례4 \_ 학교에서

“학기 초에는 같이 어울리기도 했던 (한 친구)가 있어요. 매사 차분하고 섬세한 성격에 목소리 도 가늘고 높은 편인데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몇 번 놀렸어요. 담임도 혹시 여자가 되려는 거냐며 그건 질병이고 죽어서 천벌을 받는다고 했고,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와 잘 어울리지 않게 됐는데요. 이대로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친 구가 달라지나요?”

### 사례5 \_ 집에서

“(누나)는 저보다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구인데 자기 몸에 자신감이 충분합니다. (부모님) 은 누나가 짧은 옷을 입을 때마다 ‘살 빼서 날씬해지면 더 예쁜 옷 사주겠다’고 달래면서 제지 하려고 하십니다. 저도 주변사람들에게 누나를 소개하는 것이 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누 나는 정말 자기의 뚱뚱한 몸에 불만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누나는 살을 뺄까요?”

〈표1〉 내가 사례 속의 인물이라면?

	사례 속 인물 ( )은 어떤 상황/입장인가요?	사례 속 인물 ( )은 어떤 상황/입장인가요?	내가 사례 속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표2〉 각 사례와 같은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나, 나의 공동체는 어떻게 할까요?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 3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의 토론과 내용 작성이 끝나면 모둠별로 토론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설명한다.

1) <사례1 \_ 미용실에서>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자 하는 고객의 욕구와, 여성은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선 안 된다는 미용사의 고정관념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보통 머리카락 길이와 같은 자신의 머리모양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헤어스타일에도 성별규범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때문에 사례 1의 경우처럼 ‘여자답지 못하게 너무 짧은’ 헤어스타일은 미용사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지당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성별규범에 맞는 외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강요하는 것은 타인의 선택과 개성, 인격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설명한다.

이것을 미용실이 아닌 다른 공간의 경우로 함께 생각해보면, 대개 우리는 타인의 성별을 ‘알아내려’ 하는 것에 익숙하고, 자기의 성별에 맞게 외양을 꾸며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 버스 안, 길거리, 처음 들어간 가게 등에서도 ‘당신 여자 맞느냐?(여자가 왜 여자답지 않느냐?)’는 말로 개입하는 일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여성에 대해, ‘여자가 왜 그렇게 입었느냐’, ‘여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와 같은 말은 어떤 공간에서도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타인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자답지 않은 외양”, “남자답지 않은 외양”에 대한 획일적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2) <사례2 \_ 일터에서>는 상사가 동성과 애인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서 상사와 회사에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직장동료의 말에 질문자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직장동료가 목격한 것만으로 팀장이 어떤 성적지향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직장동료가 거부감을 보이듯, 직장 내에 이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는 것은 팀장의 직장생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팀장에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한다.

우선 질문자는 직장동료의, 팀장에 대한 거부감에 다른 이유는 없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직장동료가 팀장의 성적지향만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집중해 대화를 나눠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직장동료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정보만을 접했거나, 주변에 동성과 사귀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터에 동성과 사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팀장이 동성과 사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터 내에 알려져야 하는 사실이 아니고, 직장동료가 직장 내 다른 사람에게 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아웃팅이 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직장동료의 거부감으로 팀장의 직장생활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일터에서 아웃팅(성소수자임이 의도치 않게 타인에 의해 밝혀지는 것) 당한 성소수자의 어려움을 짐작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감정은 이성애만을 정상이라고 여기는 이성애중심주의에 기반한 잘못된 정보 때문으로, 동성애에 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돌아본다면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강사는 다양한 성적지향을 가진 동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잘못되고 불충분한 정보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찬찬히 더 들여다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3) <사례3 \_ 사회에서>**는 성매매 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주변사람들 때문에 연락이 끊긴 동창을 질문자가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이 사례에서 선배는 성 판매자인 친구를 공공연히 질타하는 행동을 했고 주변사람들은 성판매 여성인 친구만을 따돌렸다고 설명한다. 이는 성판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성적 낙인으로 인해 차별과 배제가 일어난 상황이기도 하다.

친구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경험이나 정체성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고립되거나 취약해질 수 있는데도 그에 대한 고려 없이 행동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전달한다. 더구나 사례3처럼 친구의 직업을 노출하는 것이 친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은 옳지 않다고 설명한다.

강사는 친구가 처해진 상황을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친구는 자신의 성판매 경험을 알게 된 후 직접적으로 자신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수군대기 시작하는 등 친구들의 태도 변화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경험을 반복해왔다면 매우 힘든 상황임을 함께 공감해본다. 더불어 친구의 성매매 사실을 부정적으로 발설한 선배의 경우 성매매 여성을 비난하지만 자신의 성 구매 문제를 전혀 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4) <사례4 \_ 학교에서>**는 교사의 혐오발언과 이로 인한 급우의 고립을 질문자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질문자는 급우와 긴 이야기를 나눠본 것은 아니지만 그가 고립되고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고,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행동이 부당하고 폭력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급우는 ‘남자답지 않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교사나 다른 학생들에게 부당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비난당하는 등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괴롭힘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학교는 실제로 청소년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소속된 학생들을 획일화하고, 줄 세우고, 공인된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타인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이슈를 존중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부족하고, 역시 이해도가 낮은 교사가 괴롭힘을 조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사례의 교사 역시 ‘남자답지 않은’ 모든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교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병’, ‘천벌’과 같은 심한 말로 비난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도한 비난과 모욕은 한 급우가 고립되고 따돌림, 괴롭힘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질문자는 우선 그 급우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묻고, 그를 괴롭히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좋다고 설명한다.

교사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변의 신뢰할 만한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청소년상담기관과 상담할 수 있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각 지방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등을 활용한 진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급우가 심각한 괴롭힘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그 급우의 의사를 확인한 뒤 더욱 용기를 내고 지지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5) <사례5 \_ 집에서>**는 소위 ‘뚱뚱한 여성’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것에 가족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질문자는 자기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누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누나가 아니라 남자형제였더라도 같은 부끄러움이 들었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르지 않은 몸이 쉽게 조롱당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더욱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뚱뚱한 여성’에 대한 비하는 주로 ‘여자답지 않은 몸’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보통 여성의 몸은 남성보다 작고 가볍고 가늘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현실과 동떨어져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짧은 옷이나 여성스러운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살 빼서 날씬해지면’ 예쁜 옷을 사주겠다는 것은 부당하고 모욕적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질문자의 누나가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도, 누나에게 불만을 표현하고, 누나를 불신하는 주위 태도는 누나의 자존감에 결국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한다.

설령 ‘걱정’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지나친 간섭이 계속되면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일방적 기대와 강요, 폭력적 간섭은 관계를 약화시키고 악화시키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에 질문자는 가능한 가족의, 또한 자신의 고정된 생각을 변화하고, 누나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새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 4

각 사례와 같은 일이 주변에 일어났을 때 나, 또는 나의 공동체가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특정한 젠더나 섹슈얼리티(이슈)를 가진 구성원을 소외시키지 않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려면 타인의 젠더·섹슈얼리티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편안한 공동체는 아닌지, 특정한 형태의 표현, 관계, 행동만이 받아들여지는 공동체는 아닌지 공동체 문화를 돌아보고, 공동체의 젠더감수성에 대해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관련 활동 단체에서 발간한 가이드북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위 사례들은 이상하거나, 특이하거나, 예외적 인물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라고 여겨지기 쉽지만, 사례와 같은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기도 하고, 일생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여성은 이렇게, 남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 또는 ‘남성은 이렇고 여성은 이렇 것이다’라는 사고방식과 제도에 익숙해져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가장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의 내용은 절대적이거나 고정적이지 않다고 다시 설명한다. 젠더에 대한 규범은 계속해서 변화하며,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적 조건 등에 따라서도 ‘가장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판단과 수용여부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젠더에 대한 규범에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상하거나, 특이하거나, 예외적이라고 여겨지는 대상들은 불평등 경험을 더 많이 겪을 수 있고, 폭력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한다.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젠더·섹슈얼리티를 혐오(차별사유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단지 그 차별사유를 가졌다는 이유로 행하는 폭력) 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 혹은 개인의 ‘혐오할 수 있는’ 권리로 오인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혐오와 적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혐오로 상대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것 역시 평등한 관계맺음의 가능성을 파괴한다고 설명한다. 특정한 젠더섹슈얼리티를 가졌다는 것은 불평등을 겪거나 혐오당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년 6월 14일)

19대 국회에 들어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들이 발의 의원들에 의하여 자발적이란 형태로 입법 철회된 지 어느덧 50여 일이 되어 간다. 2013년 2월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하였지만 3월 말부터 보수 기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거세게 반대하자, 그 법안들은 발의된 지 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013년 4월 23일 결국 입법 철회되었다. 반대 세력의 목소리에 또 다시 입법 시도가 좌절된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정치적 협상의 거리가 되는 역사를 반복하였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후로 최근의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상황은 겉보기엔 잠잠해진 분위기라 볼 수도 있겠다. 발의안에 서명하였던 의원 사무실에는 항의전화와 비난전화가 빗발쳤고, 온라인 공간에서 차별금지법을 '망국 법', '동성애 조장법', '종북주의자를 위한 법', '반대하는 자신들의 입에 자물쇠를 걸기 위한 악법'이란 식으로 근거도 없는 비난성 댓글이 무성하였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4월 말에 보였던 광란의 모습이 최근 들어선 겉보기엔 조금씩 잠잠해지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안의 뜨거움은 전혀 식지 않았다.

지난 5월 24일과 6월 7일에 몇몇 일간지에는 예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 온 보수 기독교 계층 한 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 명의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의 입장'라는 제목 하의 전면 광고가 나갔다. 이 광고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을 내포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면 안 되는지'라는 동성애혐오적이지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러한 예처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의 획책과 혐오폭력은 이제는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점점 더 집요해지고 노골적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 기독교와 체계 등 반대 세력의 이러한 반발과 차별조장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2007년에도 보수 기독교와 체계의 반대로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던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가 있었다. 2010년 법무부는 1년여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1년 여 동안 구성·운영까지 했음에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않았으며,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역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어 왔음에도 한국정부는 소극적 답변만 반복하다가, 2012년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에서 또 다시 권고를 받은 후인 올해 2월에야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그리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연내 발의를 목표로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 법안 발의 준비를 위한 추진단의 구성이나 논의 내용과 절차, 향후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에 귀책사유가 있었던 법무부이자, 2010년에도 아무런 논의의 진전이나 성과도 내지 않았던 법무부이기에, 현재의 과정 역시 우려의 시선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올해 초 UPR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제정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대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후략)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ad-act.net>)

● 맺음

마무리하기

● 핵심 메시지

평등한 관계는 타인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으로 가능하다.

1

교육 참여자들이 소감을 발표하게 한다. 교육 참여자들의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자기 자신, 공동체, 사회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됐거나 발견한 것이 있는지 질문한다.

성과 관련한 것(섹슈얼리티)에는 서로의 위치, 가치판단이 다르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운 여러 사회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편견, 차별적이고 왜곡된 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수정할 기회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을 바로잡고 평등한 관계맺음을 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기가 겪은 불평등이 타인의 불평등 경험과 얼마나 닮았으며 연결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강의를 위한 소중한 TIP

강의 중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Q** 성은 근본적인 것인데, 교육내용은 이것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는 건가요?

**A** 교육 참여자들에게 모두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는 것일지 질문을 던진다.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성염색체, 호르몬의 비율, 외부성기형태, 생식선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성염색체, 호르몬의 비율, 외부성기형태, 생식선의 조합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성염색체가 반드시 두 가지가 아니며 한 사람의 일생 중에 변하기도 한다는 사실 역시 그러하다고 설명한다.

출생 시 성별을 결정하는 기준은 외부성기형태인데, 반드시 둘 가운데 하나의 성별로 살아가도록 맞춰진 지금의 사회에서는 남성성기의 기준, 여성성기의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성기형태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의료기술을 통해 어느 한편으로 성별을 지정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신의 성별을 어느 쪽으로 인식할지, 어느 성별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행복할지와 같은 더욱 중요한 정보들은 그 순간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성별은 지금 사회에서 거의 절대적인 정보이고, 단 두 개의 성별만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고 고려하는 체계에 많은 비판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호주는 최근 여권에 여성(F) 또는 남성(M)으로만 성별을 표기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해 다른 성(X)을 표기할 수 있게 됐고, 독일 역시 출생신고서 작성 시 성별을 공란으로 비워둘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출생신고 시부터 모두를 1번(3번)과 2번(4번)으로 나누는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달리 추후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다.

## 관련자료

### \* 영상자료

- 〈2의 증명〉 스이·케이, 2012, 다큐멘터리  
〈두 개이지 않은 성(Intersexion)〉 그랜트 러후드, 2012, 뉴질랜드, 다큐멘터리  
〈라스트 프렌즈〉 카토 히로마사·니시타니 히로시/아사노 타에코, 일본후지TV, 2008, 일본, 방송드라마  
〈3xFTM〉 김일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그린비, 2008, 다큐멘터리/다큐멘터리북  
〈OUT: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여성영상집단 움, 2007, 다큐멘터리  
〈S 아이에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 로쿠하나 치요, 손희정, 학산문화사, 2006, 일본, 만화/방송드라마  
〈헤드워〉 존 카메론 미첼, 2000, 영화/뮤지컬

### \* 책

-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인권운동사랑방, 도서출판 오월의봄, 2013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옮김, 2013  
『똥똥해서 죄송합니까?: 예뻐지느라 아픈 그녀들의 이야기』 한국여성민우회, 후마니타스, 2013  
『보스턴 결혼: 여자들 사이의 섹스 없는 사랑에 관한 사적인 이야기』 에스더 D. 로스블럼, 캐슬린 A. 브레호니, 이매진, 2012  
『성의 정치 성의 권리』 권김현영 외, 자음과모음, 2012  
『남성성과 젠더』 권김현영 외, 자음과모음, 2011  
『언니들 집을 나가다: 가족 밖에서 꿈꾸는 새로운 삶 스물여덟 가지』 언니네트워크, 에세이, 2009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퀴어이론연구모임WIG, 사람생각, 2008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수전보르도, 또하나의문화, 2003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막달레나의집, 삼인, 2002  
『섹슈얼리티』 조셉 브리스투우, 이연정·공선희 역, 한나래, 2000  
『여성주의 학교 '간다': 페미니즘의 경계에서 세상을 말하다』 한국여성민우회 역음, 지성사, 2008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제프리 워스, 서동진 역, 현실문화연구, 1999

### \* 관련 홈페이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ad-act.net>)  
장애여성공감 (<http://www.wde.or.kr>)  
인권오름 (<http://hr-oreum.net>)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 별의별상담연구소 (<http://878878.net>)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www.lgbtpride.or.kr>)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ttp://lgbtact.org>)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라잡이 트랜스로드맵 (<http://transroadmap.net>)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http://queerarchive.org>)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http://www.e-loom.org>)  
언니네트워크 (<http://www.unninet.net>)





## 친밀한 관계와 젠더감수성 더 좋은 관계 만들기

우리는 가족, 연애상대나 배우자,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러한 관계들은 ‘친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이니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친밀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강요할 때, 친밀한 관계는 괴로운 관계가 되기도 하고, 끊어야 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강의는 이를 위해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돌아보고,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 ● 강의 주제

- 친밀한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젠더감수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평등하고 상호적인 관계의 주체가 된다.

### ● 강의 목표

-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적 행동을 돌아본다.
-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을 이해한다.
- 상호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색한다.

### ● 강의 대상 및 활용

- 성인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 ● 강의 환경

- 동영상 등 시각자료 시청 가능
- 모둠 작업 가능

### ● 강의 소요시간

- 60분

### ● 강의 지침

- 강의 전 교육 참여자들의 연령 또는 성별, 가족상황 등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여 사례를 조정한다.
- 교육 참여자가 자신의 일상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강의 내용이므로, 강의 중 교육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할 때, 비난 또는 평가 받는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 참여자들이 충분히 자기를 성찰할 수 있도록 1강 또는 2강 수강 후 본 강의를 듣도록 권장한다.

### ● 강의 요약

단계	목표	핵심메시지	준비물	소요시간
도입	인사 나누기 강의 주제 소개하기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5분
전개1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적 행동 돌아보기	친밀한 관계의 성적 행동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15분
전개2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발생 구조 이해하기	성별규범과 성별 권력관계는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활동지 필기도구	20분
전개3	더 좋은 관계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모색하기	상호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활동지 필기도구	15분
맺음	마무리하기	일상의 노력으로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5분

● 도입

인사 나누기, 강의 주제 소개하기

● 핵심 메시지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강사는 자신을 소개하며 교육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를 돌아보고,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것임을 설명한다.

**1**

교육 참여자들에게 ‘친밀감’ 혹은 ‘친밀한 관계’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나 감정, 상황이 떠오르는지 묻고 답변을 듣는다. 교육 참여자들은 대부분 가족, 연애상대나 배우자, 친구 등과 같이 가깝고 애정을 공유하는 관계를 떠올리고, 포근함, 휴식, 따뜻함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이 언급한 사람, 관계 단어, 사례, 상황을 공유하면서 교육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친밀함과 친밀한 관계가 어떤 내용인지 정리한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는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갈등, 질투, 다툼, 폭력 등과 같은 다른 측면의 감정이나 관계도 더 자주, 더 깊게 생길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2**

이번 강의는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돌아보고, 보다 좋은 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이나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해볼 것임을 설명한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야기하기 어렵고 깔끄러울 수 있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친밀한 관계의 성적 행동과 성폭력에 대해 생각해볼 것임을 설명한다.

**3**

교육 과정에서 교육 참여자들이 함께 지킬 약속을 담은 안내지를 배부하고 내용을 함께 읽는다.

● 전개 1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적 행동 돌아보기

● 핵심 메시지

친밀한 관계의 성적 행동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1

강사는 먼저 교육 참여자들에게 성적 행동과 관련한 상황을 유인물 또는 시각자료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가족, 연애상대나 배우자, 친구 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에 대해 떠올려볼 것을 제안한다.

사례 1

집에서 속옷만 입고 다니는 아빠의 행동

사례 2

다섯 살 조카에게 볼이나 입술에 뽀뽀해보라고 하는 삼촌의 행동

사례 3

연애상대에게 스킨십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키스를 한 남성의 행동

사례 4

연애상대의 일상을 24시간 확인하고 휴대폰을 검사하며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여성의 행동

2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 중 몇몇의 생각을 들어보고, 사람마다 위의 행동을 불편하게 느끼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기도 하는 것은 각자 '친밀함'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임을 설명한다. 강사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성적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1) 가족마다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속옷만 입고 다니는 아빠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가족의 벗은 몸을 보는 것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전달한다. 또한 성인인 가족 구성원은 자녀 등 아동기의 가족 구성원에게 옷을 벗는 행동이 사적인 행동이고 그에 적합한 공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집 안에서 가족끼리 있을 때도 기본 옷차림을 갖추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 사례2도 삼촌의 행동을 조카에 대한 애정표현이라고만 여기고 지나치기보다, 뽀뽀하게 하는 삼촌의 행동을 조카가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조카가 얼굴을 찌푸리거나 손으로 미는 등의 행동으로 싫다는 의사를 표현한다면 억지로 그러한 행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그동안 가족 간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자연스럽게 여겼던 행동에 대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친구 등 아동이 만날 수 있는 주변사람들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3) 사례3과 같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이 확인되지 않은 성적 행동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다고 전달한다. 특히 ‘연애관계의 성적 행동은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여성은 성적으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여성의 거절은 내숭이다’ 등의 통념이 작용하고 있는 탓에 여성이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뢰가 형성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짐작하여 행동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4)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에게 사례4처럼 친밀한 타인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검색’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 가까운 사이라도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며,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행동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임을 설명한다. 또한 연애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 감독하는 행위가 ‘가까운 사이니까’ 또는 ‘사랑하니까’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또 다른 구속과 폭력으로 발전하기 쉽다고 설명한다. 보다 좋은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집착이나 간섭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 3

교육 참여자들은 해당 사례들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친하고 편한 사이라는 이유로, 또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일방적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보다 좋은 관계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한다.

● 전개 2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발생 구조 이해하기

● 핵심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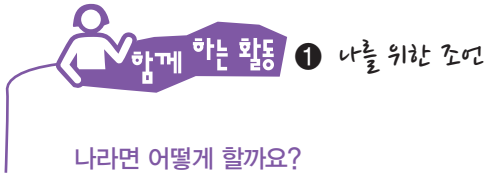
성별규범과 성별 권력관계는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1

강사는 연애상대나 배우자 사이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육 참여자들에게 묻고 대답을 들어본다. 성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연애상대나 배우자 사이처럼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예상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성폭력’이 아니라 ‘성관계’라고 여기는 문화, 가족 사이에는 성폭력 같은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통념 때문에 더욱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동은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설명한다.

2

〈함께하는 활동① 나를 위한 조언〉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전체 인원에게 따라 4~6명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별로 토론 시간을 준다. 전체 사례를 다루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 참여자 수와 시간을 고려하여 모둠별로 서로 다른 하나의 사례를 토론하도록 하고 토론 내용을 공유한다. 교육 참여자들의 특성과 인원을 고려하여 토론 및 내용 작성 시간은 10~15분으로 배정한다. 토론 자료는 아래의 예시 자료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뉴스나 영화, 드라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 참여자들의 연령,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례로 대체할 수 있다.



##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 사례1 \_ A의 고민

나는 싫은데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한다. 내가 싫다고 해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싫다고 하면 '내 부인인데 내 맘대로 섹스도 못하냐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화를 낸다. 어떻게 해야 할까.

### 사례2 \_ B의 고민

어제 평소처럼 데이트하던 중 남자친구와 함께 모텔에 갔다. 하지만 성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거부했는데도 남자친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화를 내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이전에도 남자친구와 몇 차례 성관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이후 자꾸 그 일이 생각나 가슴이 답답하고, 남자친구 만나는 게 편하지 않아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 사례3 \_ C의 고민

헤어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겠다. 몇 달째 전화연락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있지만 내 연락은 받지 않는다. 여자친구의 동생과 친구들에게도 연락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해봤지만 잘되지 않았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잘해보고 싶어 며칠째 무작정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 3

토론과 내용 작성이 끝나면 모듈별로 토론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성관계를 경험한 사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명명하기 어려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성관계를 한 여성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현실 때문에 피해자인 여성이 성폭력으로 인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어렵고, 피해자인 여성이 피해를 호소해도 성폭력이라기보다 개인 간의 성적 행동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강사는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발생 구조와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1) 연애상대나 배우자 사이처럼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예상되는 관계에서도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이나 성관계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는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을 이용한 반복적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도 발전할 수 있지만, 아내의

성을 남편의 소유로 여기는 인식이 만연한 사회이므로 아내강간이 일어나더라도 심각한 범죄라기보다 부부싸움,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기 쉽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내강간은 친밀한 배우자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곤란을 겪는 심각한 성폭력이라고 강조한다.

강사는 모든 이의 성적 자아와 인격이 친밀한 관계에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내가 사례1과 같은 고민 상황에 놓여있다면, 무엇보다도 삶의 주체인 '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연애상대나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이나 성관계를 강요할 때, 이것이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배우자와 거리두기를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를 중단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 전문기관에서의 상담이나, 의료적 치료, 신고, 법률 상담 등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달한다.

## 더 알아보기 아내강간에 대한 첫 번째 유죄 판결

2009년 1월 부산지법은 흉기로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씨에 대해 헌정 사상 최초로 아내강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아내강간 문제는 1993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쟁점이 되어왔으며, 한국 정부는 2007년 UN으로부터 아내강간을 처벌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의 판결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법원이 “형법상의 ‘부녀’에 ‘혼인 중의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만큼 현행법으로도 부부강간을 처벌할 수 있다”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이고, 아내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는 점이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민법상 동거의 의무를 통해 유지되는 가족의 안정성’이나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 판례는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며 ‘내 여자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발상에 경종을 울렸다.

2) 데이트 성폭력은 데이트 중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데이트 성폭력은 사례2처럼 이성간의 연애관계에서 남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적 행동이나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끈질기게 요구하는 행위도 데이트 성폭력이라고 이야기한다. 데이트 성폭력은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지만, 연애관계라는 이유로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데이트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또한 데이트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성별구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짚어준다. ‘남자다운 남자’는 연애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여자다운 여자’는 상대방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이성애) 연애각본’을 따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랑 고백이나 스킨십 등을 남성이 주도하고 여성은 마지못해 따르는 연애 구도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는 평등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과 의견을 명확하게 주고받지 못하며, 성적 행동에 관해서도 서로의 욕구와 감정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게다가 ‘여성의 no는 no가 아니다’, ‘터프한 행동이 남자답다’고 받아들여지는 등의 잘못된 통념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성적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데이트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며 자신의 행위를 성관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연애관계의 성적 행동이 일방적이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 사회 인식을 반영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따라서 데이트 성폭력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연애상대인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상대방이 과연 나와 상호적인 사랑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그와 같은 관계를 바꾸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나는 연애상대의 소유물이 아니며, 그 누구보다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고려해 연애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 혼자 해결하기보다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3)** 사례3의 상황이 C의 ‘순애보’로 보일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C의 행동에 상대방은 스토킹으로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불면증, 신경쇠약, 무력감, 불안, 공포 등을 호소하는 심각한 성폭력이지만, ‘애정문제’로 사소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더욱 고통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집요하게 상대방과 그 주변인의 일상을 침해하는 행동은 더욱 심각한 스토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스토킹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범죄임을 설명한다. 내가 C라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며 상대방이 나의 행동 때문에 불안하거나 불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젊은 남녀의 연애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된 것이 최근에서야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남녀의 연애는 결혼과 이성애 핵가족으로 이어지는 근대의 사적 영역 구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연애를 규정하는 것은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 이데올로기다. 근대 이전 전통적인 친족관계망에서 집안끼리의 만남을 뜻했던 남녀의 결합이 이제는 상대방 개인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맺어지고 유지되는 관계로 통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상 결혼은 생계부양자인 남편과 가사를 돌보는 아내라는 성별 역할로 규정되는 제도다. 남녀의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을 때 연애는 서로 결혼조건을 탐색해보는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었으며, 탐색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그 한 번의 사귀미 영원한 결혼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다. 여기서 조건의 교환이란 남녀 각자가 가진 능력의 평등한 교환이라기보다 가부장적 이성애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성별화된 조건의 교환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귀미와 결혼의 결과도 성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다. (중략) 한편 '낭만적 사랑'은 이성애 결혼의 이상과 결합되어 성적 실천에서 결혼 안의 성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또한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기보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에게는 결혼 안과 밖의 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이중 각본이, 여성에게는 사랑과 성, 결혼을 일치시켜야 하는 공식적인 하나의 각본이 존재한다고 분석한 연구들은 성(sexuality)의 이와 같은 성별 권력적인 성격을 드러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친숙하게 들을 수 있었던 '순결 이데올로기' 같은 용어가 그 좋은 예다.

(『여대생의 연애 경험』,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변혜정 엮음, 동녘, 2006)

● 전개 3

더 좋은 관계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모색하기

● 핵심 메시지

상호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1**

보다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서로가 관계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성적 행동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상기시킨다. 어느 한쪽이 성적 행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짐작하여 행동하기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즉, 일상적으로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한다' 식의 '(이성애) 연애각본'에 구애받지 말고 서로 고유한 특성을 자연스럽게 밝히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존중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기본임을 강조한다.

**2**

교육 참여자들이 <함께 하는 활동 ② 새로 쓰는 관계 지침서>를 통해 자신의 친밀한 관계들을 떠올리며, 각자 더 좋은 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것을 제안한다. 이때 연애상대나 배우자와 평소에 충분히 대화하기, 성별규범에 거리두기, 친밀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 상대방의 휴대폰, 이메일 검사하지 않기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해주면 토론에 도움이 된다.

**3**

토론 내용 작성 후 모둠별로 또는 개인별로 작성 내용을 발표하여 상호적이고 평등한 친밀한 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떠올려보며 새로 쓰는 <관계 지침서>를 만들어 보세요.

하나.

---

---

둘.

---

---

셋.

---

---

넷.

---

---

다섯.

---

---

---

---

● 맺음

마무리하기

● 핵심 메시지

일상의 노력으로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1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과 나눈 아이디어들을 반드시 실천해볼 것을 당부하고, 강의 내용을 요약한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친밀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드러내기 어렵다고 다시 설명하고, 따라서 더욱 민감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성찰하고, 내가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여기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어떤지 세심하게 살피는 태도를 갖추고,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할 때 이를 존중하려는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전달한다. 변화를 위한 일상의 노력을 통해 보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한다.



강의 중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Q 스킨십 할 때마다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A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신호를 정해서 동의와 수락, 거절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매번 친밀한 관계의 성적 행동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가깝고 친밀한 사이라 하더라도 그때의 상황에 따라 성적 행동에 대한 감정과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임을 이야기한다.

관련자료

책

-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2012
- 『보통의 경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매진, 2011
-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매진, 2011
- 『결혼제국』 우에노 치즈코, 노부타 사요코, 정선철 옮김, 이매진, 2008
-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 변혜정 엮음,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동녘, 2006
- 『현경과 앨리스의 신나는 연애』 앨리스 워커, 현경, 마음산책, 2004





아동성폭력과 젠더감수성

## 아동성폭력에 제대로 맞서는 방법

아동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나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혹시 우리의 자녀도 성폭력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동에게도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더 주의를 주게 되고, 아동의 옷차림도 신경이 쓰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공포와 두려움은 아동성폭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아동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강의는 아동성폭력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아동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 강의 주제

- 아동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며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아동성폭력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을 모색한다.

● 강의 목표

- 아동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한다.
- 아동성폭력의 발생 구조 및 특성을 이해한다.
- 아동성폭력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을 모색한다.

● 강의 대상 및 활용

- 부모, 교사 등 아동과 만나는 성인 집단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 강의 환경

- 동영상 및 시각자료 시청 가능
- 모둠 작업 가능

● 강의 소요시간

- 80분

● 강의 지침

- 강의 전 교육 참여자들이 만나는 아동의 특성(연령, 성별 등)을 파악한다.
- 교육 참여자들의 공동체 (학교, 가족, 마을 등)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지 반드시 살핀다.
- 교육 참여자들이 충분히 자기를 성찰할 수 있도록 1강 또는 2강 수강 후 본 강의를 듣도록 권장한다.

● 강의 요약

단계	목표	핵심메시지	준비물	소요시간
도입	인사 나누기 강의 주제 소개하기	아동성폭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무력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5분
전개1	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점검하기	성폭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5분
전개2	아동성폭력의 발생 구조 및 특성 이해하기	아동성폭력은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해해야 한다.		15분
전개3	아동성폭력에 대한 책임과 역할 공유하기	아동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아동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활동지 필기도구	30분
맺음	아동성폭력에 맞서기 위한 실천 방법 모색하기	아동성폭력에 맞서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15분



● 도입

인사 나누기, 강의 주제 소개하기

● 핵심 메시지

아동성폭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무력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강사는 자신을 소개하며 교육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이번 강의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아동성폭력에 맞서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임을 설명한다.

**1**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에게 끔찍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뉴스를 듣거나, 성범죄자 신상 정보와 관련한 우편고지 등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묻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질문한다. 아동성폭력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 불안과 공포가 크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하게 느껴지거나, 자세히 알면 괴로울 것 같아 멀리하게 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 무력감, 무관심만으로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그보다는 아동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번 강의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아동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것임을 설명한다.

**2**

교육 과정에서 교육 참여자들이 함께 지킬 약속을 담은 안내지를 배부하고 내용을 함께 읽는다.

● 전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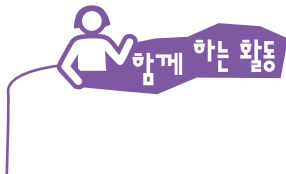
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점검하기

● 핵심 메시지

성폭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

강사는 본격적으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볼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사람들의 생각과, 드라마, 영화, 뉴스에서 재현되는 성폭력 이미지의 영향을 받으며 성폭력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는 자신도 모르게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자리 잡기도 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아동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깊이 자리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점검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자신 뿐 아니라 아동이 성폭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제대로 맞서기 위한 시작임을 설명한다.



① 성폭력에 대한 생각을 점검해보는 OX QUIZ!

강사는 성폭력을 둘러싼 편견에 대한 문구를 교육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OX퀴즈를 진행한다.

- 1)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 )
- 2)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충동적' 성욕 때문에 일어난다. ( )
- 3) 남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다. ( )
- 4)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조심성 없는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 )
- 5) 성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다. ( )

## 2

강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각 문항을 설명한다. (※이번 강의에 앞서 1강을 진행했다면 간단히 설명한다.)

### 1)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낯선 사람이다. (X)

낯선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일 때도 있지만, 이웃이나 가족, 친구, 동료 등과 같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미디어나 뉴스에서는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주로 보도하거나 재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폭력이 낯선 사람에 의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가깝고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대처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 2)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충동적' 성욕 때문에 일어난다. (X)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충동적' 성욕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폭력이 일반적으로 가해자-피해자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왜곡한다고 설명한다. 성폭력을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가'의 개인적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 속에서 성폭력이 발생 가능하고 묵과되는지 접근하자고 제안한다. 남성의 성욕을 과장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는 남성의 성폭력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정당화하는데,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적욕구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 3) 남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다. (X)

'성폭력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는 편견이 있지만 남성도 피해를 경험하며, 특히 13세 이하 아동의 경우 전체 아동성폭력 피해자중 약 10%정도(한국성폭력상담소 2012년 상담통계)가 남성임을 설명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편견 때문에 성폭력을 경험한 남성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드러내어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남성 피해라고 결코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 4)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조심성 없는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X)

실제로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여름이나 밤늦은 시간에 성폭력이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통념 때문에 여성들의 몸과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특정한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게 만드는지 고민해보기를 제안한다. 유독 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혐의를 두는 것은 남성의 성욕은 성폭력으로 이어진다는 편견과 관용적 시선, 여성에게 순결

과 정속을 강요하는 성규범이 바탕이 된다. 성폭력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행동이나 외모를 관련시키는 것은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묻는 2차가해임을 설명하고, 다시 그 원인을 가해자-피해자의 권력관계, 한국사회 성규범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 5) 성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다. (X)

성폭력을 경험하면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성폭력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주변사람들의 반응과 시선 때문에 더욱 가중된다고 설명한다. 적절한 개입과 상담을 통해, 성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성폭력피해자를 험한 일을 겪는 대상으로 불쌍하게 바라보는 대신,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고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 3

강사는 우리 안에 완고하게 자리 잡은 편견들은 성폭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피해자를 돕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도 모르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 바로잡아 갈 것을 제안한다.

## 아동성폭력의 발생 구조 및 특성 이해하기

● 핵심 메시지

아동성폭력은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해해야 한다.

### 1

아동성폭력의 위협에 닥쳤을 때, 또는 주위의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아동성폭력의 특성에 대해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설명한다.

#### 1)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 이다

언론보도는 아동성폭력 가해자를 소위 ‘사이코패스’나 소아 성기호자 등으로 묘사하여, 아동성폭력을 특수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여기게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아동성폭력 가해자는 친부, 의부, 오빠, 삼촌, 할아버지, 사촌 같은 친·인척부터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사람, 부모의 아는 사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또래 등 평소 아동이 신뢰관계를 맺어온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린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2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13세 이하 아동 피해 중 약 85% 정도가 아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8~13세 아동의 피해 중 52.1%, 7세 이하 아동의 피해 중 50%가 친인척에 의한 피해이며, 8~13세 아동의 피해 중 22.2%, 7세 이하 아동의 피해 중 31%가 유치원이나 학교, 동네 사람에게 입은 피해임을 설명한다.

#### 2) 아동성폭력은 드러내기 어렵다

대부분의 부모나 교사는 아동이 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성폭력 피해를 주변사람에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이 피해 직후 부모나 교사 등 주변의 성인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경우는 전체 피해의 30%에 지나지 않는다(해바라기 아동센터 2008년 사업보고서)는 것을 설명한다. 특히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며, 아동의 호소를 보호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가해자가 아동에게 ‘어른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말하지 않으면 용돈을 준다’는 등의 말로 회유하기도 하고, ‘피해를 말하면 부모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아동을 협박하거나, 부모의 지인일 경우 아동 때문에 ‘부모와

사이거나 나빠질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위협한다고 설명한다. 아동은 이러한 회유나 협박,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의 성폭력 피해 여부를 신속하게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아동의 일상적 행동이나 태도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만약 아동의 몸에 못 보던 상처가 보이거나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아동에게 평소와 다른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일상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3) 아동 피해자는 심리적·신체적으로 변화를 겪을 수 있다

개인의 경험과 성격,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아동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로 몸에 상처가 남거나, 성병, 임신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이나 우울, 분노 등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불면증을 겪거나 악몽을 자주 꾸기도 하며, 성에 대해 과도한 호기심을 보이거나 성에 대해 혐오감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알린다. 아동 피해자가 이런 변화를 나타낸다면 가족, 교사 등 주변의 성인들은 아동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정과 안전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며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강조한다.

## 2

성인의 관점에서 보면 신체적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아동의 피해 상황이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성폭력 피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아동성폭력 피해 상황을 쉽게 지나치거나 사소하게 여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동의 주변 성인들이 아동성폭력을 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성폭력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눈높이에서 피해 상황을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평소 아동의 일상을 면밀히 살피고, 아동과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분위기와 관계를 만들어 아동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아동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환경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 전개 3

아동성폭력에 대한 책임과 역할 공유하기

● 핵심 메시지

아동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아동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1**

강사는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자를 비롯한 주변 성인들의 적절한 대처와 반응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을 돕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2**

〈함께하는 활동②〉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아동성폭력 사례를 활용하여,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이 사례의 당사자거나 주변인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모둠별로 토론하도록 하고, 아동성폭력에 대한 성인들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전체 사례를 다루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 참여자 수와 시간을 고려하여 모둠별로 서로 다른 하나의 사례를 토론하도록 하고 토론 내용을 공유한다.

**3**

강사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아동성폭력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더 나아가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부모나 교사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1)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사례 1처럼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아동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들은 대부분 놀라고 당황해 아동에게 화를 내거나 피해 사실을 다그쳐 묻곤 하지만, 보호자의 불안은 아동에게 쉽게 옮겨가 아동을 위축시키거나 죄책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피해사실에 대해 묻고 듣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이때 아동이 용기 있게 말을



## ② 우리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 사례1

“일곱 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여자아이들을 성추행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아저씨가 자신과 친구들의 몸을 만진다고 그래도 되는 건지 조심스럽게 물어봐서 알게 되었어요. 슈퍼마켓 주인이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면서 성추행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례2

“며칠 전 저희 집에 놀러온 옆집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집 아이가 아빠한테 강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아프게 해서 집에 아빠와 같이 있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6학년인 아이에게 꽤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이야기에 제가 더 놀라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몇 년이나 알고 지낸 집인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례3

“일곱 살인 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며칠 전 유치원에서 여자아이 몇 명과 남자아이 몇 명이 옷을 벗고 서로의 몸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미있는 장난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딸에게 성폭력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들었는데요. 걱정이 돼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례4

“며칠 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학교에서 같은 반 여자아이가 싫다는데도 자꾸 손을 잡고 껴안는다는 거예요.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라고 하시는데 속이 상합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꺼낸 것을 칭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심정을 헤아려주면서,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한 아동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동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가 나쁜 행동을 한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동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관해 질문할 때는 아동이 성인과 같은 수준의 표현력이나 기억력, 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차분하게 차근차근 질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 유치원에 가는 날이었니? 점심 먹고 나서야? 제일 처음에 그런 게 언제야?) 아동과 나눈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하며, 피해 아동이 안전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상담이나 의료적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재발방지와 가해자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때 아동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반성하고 사과하면 조용히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그리고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아동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 가해자를 바로 만나기보다는 다른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에게 알려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응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 더 알아보기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사·사법 절차상 지원제도

### 성폭력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피해자 위주 조사환경을 위해, 보호자, 상담사 등이 수사 과정에 동석할 수 있다.

### 진술 녹화 제도

반복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활용된다.

### 진술조력인 제도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진술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 친족성폭력에 개입하기

친족성폭력은 아동성폭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가족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특히 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는 전체 친족 성폭력 중 46%(해바라기 아동센터 2008년 사업보고서)에 이르는데, 이들이 아동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보호자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친족성폭력은 상대가 평소 가까이 지내며 입맞춤, 포옹 등으로 친밀함을 표현해온 '가족'이기 때문에 아동이 가해자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유아나 아동일 때 시작된 친족성폭력 피해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등,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은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친밀한 가족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가족관계가 깨질 것을 우려해 혼자 참는 경우가 많고, 주위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믿어주지 않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적지 않은 친족성폭력 사례의 가족은 성폭력을 장기간 외면하거나 방치하며, 사건이 알려지더라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보다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도록 하는 데 더욱 노력한다. 친족성폭력은 가족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며, 사례2처럼 우연히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이웃이나, 친구,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의 개입으로 성폭력 피해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친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례2처럼 아동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지, 괜한 참견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수 있지만, 망설이는 동안에도 옆집 아동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용기 내어 개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때 피해에 대해 옆집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친족성폭력의 특성상 가족 내에서 해결되기가 쉽지 않으므로, 피해 아동이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아동센터 같은 전문기관에서 상담, 치료 및 법적 대응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친족성폭력피해아동은 상황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쉼터와 같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 더 읽어보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어느 성폭력 생존자의 빛나는 치유 일기』 —

2012년 8월 친족성폭력 생존자 은수연씨의 치유일기《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침묵을 깨고 '생존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세상에 말을 건네는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 은수연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9년 동안 아버지의 성폭력을 견디다 마침내 탈출할 때까지 자신의 겪은 경험을 가감 없이 증언한다. 그리고 탈출과 가해자 처벌에서 끝나지 않은 생존자의 이야기,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 출판사 리뷰 中

### 3) 놀이와 폭력 사이

아동성폭력 가해자는 성인일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또래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또래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아이들 사이의 놀이로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가해자가 아동이더라도 가해자가 악의적 의도나,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 아동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폭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동 양쪽이 모두 억압이나 강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고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했다면, 해당 상황을 성폭력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적인 놀이를 하는 아동을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성적인 놀이에 대한 느낌이나 호기심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례3의 경우 아동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고, 아동이 어떠한 억압이나 불쾌함, 불편함도 느끼지 않았다면 성폭력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몸을 보여주어도 괜찮은 사람(예: 엄마 등)은 누구이고 장소(아동의 방, 공중목욕탕 등)는 어디인지에 대해 아동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앞으로 아동이 함부로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 4)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

사례 4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남자 아동을 둔 보호자는 ‘남자아이라 좋아하는 마음을 짓궂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사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상대방에게 불쾌함과 불편함을 주는 행동은 폭력임을 아동이 분명히 알아야 하며, 좋아하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례4의 경우 보호자는 아들에게 아들의 행동이 상대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사과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아동이 타인을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기 바란다면, 어렸을 때부터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몸과 마음에 익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아동성폭력에 맞서기 위한 실천 방법 모색하기

● 핵심 메시지

아동성폭력에 맞서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1

아동성폭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아동은 물론, 부모, 교사, 이웃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부모 등 보호자는 누구나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며, 하지 말아야 할 성 행동을 분명히 알려준다. 그리고 평소 자녀의 성에 대한 생각과, 몸의 성장과정과 주변관계에서 겪는 갈등에 대해 많이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사는 또래관계 속에서 성별규범에 제한되지 않는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육기관 내에서 성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각 지역 성폭력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아동을 지원한다. 또한 교사 또는 이웃은 공동체 내의 젠더감수성을 돌아보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은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등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아동이 피해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고 피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 2

특히 아동이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연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 1)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표현하도록 돕기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동이 놓여있는 위험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임을 이야기한다. 어떤 상황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거나 대응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아동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특정한 상황이 좋은지 싫은지, 편한지 불편한지를 스스로 살피고, 그러한 기분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부당한 요청을 거절하는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제안한다.

## 2) 상대방을 존중하는 연습하기

아동이 폭력에 무디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평소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아동이 자신이 무심코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 괴롭거나 불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입장 바꾸어 생각해보기’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제안한다.

## 3) 충분히 대화 나누기

성폭력 상황을 신속히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평소 아동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아동의 일과를 묻고 듣는 과정을 통해 아동이 평소에 무슨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몸이나 태도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므로, 아동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보호자에게 쉽게 말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 4) 구체적인 성폭력 상황을 떠올리며 대처방법 연습하기

아이에게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거나, 싫다고 말하라고 이야기해두는 것만으로는 아동이 성적 공격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보다는 아동이 구체적으로 성폭력 상황을 떠올려 직접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해보며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임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이웃 아저씨가 억지로 뽀뽀하려고 할 때, 모르는 사람이 엄마 친구라며 따라오라고 할 때 등과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아동이 그 사람들의 제안이나 행동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몸짓과 말을 직접 해보도록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함께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 3

아동성폭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노력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성폭력피해아동의 치유를 믿고 응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아동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을 ‘순결을 잃었다’거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오히려 아동에게 상처를 주고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을 설명한다.

아동은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가 성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치유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부모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고정된 상을 버리고, 아동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응원할 것을 제안하며 마무리한다.



강사를 위한 소중한 TIP

강의 중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Q** 아직 어린 아이에게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겁만 먹는 것은 아닐까요?

**A** 성폭력 사건이 크게 보도되어 온 나라가 난리일 때나 주변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스럽지만, 시간이 지나 잠잠해지면 성폭력에 대한 관심도 줄어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대처방법 등을 잘 알아두는 것이 아동에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당장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좋은 일도 아닌데 깊이 알면 괴로울 것 같아 미루게 되는 질문자의 마음을 짊어준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폭력 상황들을 떠올려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아동과 이야기해보고, 일상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효과적인 예방주사가 될 것임을 이야기 한다. 미리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정작 성폭력의 위험이 닥쳤을 때, 또는 주변 사람이 성폭력피해를 입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오늘 당장 아동과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 것을 제안한다.

관련자료

☞ 영상자료

〈잔인한 나의, 흠〉, 아오리 감독, 2013, 다큐멘터리

☞ 책

『유진과 유진』, 이금이, 푸른책들, 2004

『보통의 경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매진, 2011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은수연, 이매진, 2012,

『아주 특별한 용기』, 엘렌 베스, 로라 데이비스, 동녘, 2012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 마리 프랑스 보트, 파스칼 르메트르, 문학동네, 2010

『말해도 괜찮아』, 제시, 문학동네, 2007

『거침없는 아이, 난감한 어른』,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김백애라 · 정정희, 문학동네, 2011

##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 권리헌장\*

### 전 문

모든 어린이는 나이, 성별, 경제력, 신체적 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상관없이, 인격적 존재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아가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발달시킬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적 기회와 사회적 지원 및 배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어떤 식으로든 어린이의 의사에 반해 어린이의 심신을 해치는 행위를 가할 수 없다. 모든 어린이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어린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어린이의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없다.

만일 어린이의 이러한 권리가 성적 폭력에 의해 침해당했을 경우,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니며,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더불어 어린이 성폭력피해자가 피해의 기억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피해로 인해 다른 권리들이 침해받지 않게 하고, 또 다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어린이들은 이상의 권리를 존중받고, 나아가 원치 않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와 환경 속에 자라날 권리가 있다.

### 어린이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 - 수사/공판과정에서

1. 내가 어리다고 나의 말을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나도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1.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1. 내가 왜 모르는 어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어떤 어른들인지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주세요.
1. 나에게 그 때 왜 도망치거나 소리치거나 싫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고 묻지 마세요. 그 일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 이 “어린이성폭력 피해생존자 권리헌장”은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 제정하여, 동 협의회 주최 「어린이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 및 수사, 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2004)」에서 발표한 것이다.



강사를 위한 소중한 TIP

- 1. 나의 이름이나 얼굴, 학교 등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알리지 말아주세요.
- 1. 나를 또 다른 위협과 폭력 속에 놓아두지 마세요. 나는 안전할 권리가 있어요.
- 1.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앞에 혼자 가서, 기억하기 싫은 일을 말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야기해야할 땐 무섭지 않은 곳에 아는 어른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 1.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질문해주세요.
- 1.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주세요.
- 1. 무조건 예, 아니오 둘 중 하나로 답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너무 많아요.
- 1. 그 일과 관련된 것 말고, 나에 대한 다른 것들을 자꾸 물어오는 것은 싫어요.
- 1. 그 일을 자꾸 기억하고 말하는 게 너무 싫고 힘들어요. 한번만 말하게 해주세요.
- 1. 나의 이야기도 어른들 말처럼 중요한 말로 인정해주세요. 어리지만 나도 나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말할 줄 알아요.
- 1.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싫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따로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 1. 다른 어른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해주세요.
- 1.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 1.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내가 일러서 벌 받았다고 나한테 쫓아올까 봐 무서워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더 무서워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 어린이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 -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 1. 나를 병원에 데려갈 때는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쉬운 말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1. 나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될 치료해줘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 1. 병원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검사 받고 치료받는 것은 싫어요. 내가 어떤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 알려주세요.
- 1. 내가 아픈지, 혹시 아플 수 있는지, 아프면 얼마나 어떻게 아플지 미리 쉬운 말로 알려주세요.
- 1. 무서운 병원에서 나 혼자 의사선생님에게 검사 받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아는 어른이 내가 검사받고 치료받는 동안 내 옆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 어린이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 - 일상적 권리

- 1. 나한테도 잘못이 없었는지 의심하거나,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혼내지 마세요.
- 1.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나쁜 일이니 말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말하고 싶을 때는 말 할 거예요.
- 1. 나를 이상한 아이처럼 대하지 마세요. 내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1. 나한테 일어난 나쁜 일 때문에 내가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 어른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힘들다고, 내 말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1. 힘든데 참으라고, 잊어버리라고 하지 마세요.
1.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아프고 힘들다고 막 표현할 때, 나를 이상한 아이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1. 내 마음에 대해 맘대로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아프지 않아 보인다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1. 내가 힘든 걸 말하고 싶을 때 옆에서 따뜻하게 들어주세요.
1. 내가 힘들고 아플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1. 나는 힘든 일을 잘 이겨내고 있어요. 나한테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싶어요.

#### 어린이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 - 교육과정에서의 권리

1. 나에게 있었던 일 때문에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1.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 친구나 선생님들이 나에게 있었던 나쁜 일을 알지 못하게 해주세요.
1. 그때 있었던 나쁜 일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잘 놀기 어렵거나 공부하기 어려울 때, 또는 아프거나 힘들 때, 내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친구들과 잘 놀기 어렵거나 공부하기 어려운지, 내가 어떻게 아픈지,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아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 어린이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 - 보도(과정)에서의 권리

1. 나에게 있었던 나쁜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을 때는 말하게 해주세요.
1. 나에게 있었던 나쁜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1.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내가 한 이야기를 TV나 신문에 말하지 말아주세요.
1. 내가 말하겠다고 하고 말했더라도, 나중에 그게 싫어지면 TV나 신문에 말하지 말아주세요.
1. 나의 힘든 마음을 보기보다 호기심으로만 보는 어른들에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1. TV나 신문에 내 이야기를 말할 때는 그게 내 이야기인지 사람들이 알게 하지 말아주세요.
1. 내 이야기를 TV나 신문에서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 미리 쉽게 설명해주세요.
1. TV나 신문에서 내 이야기를 다룰 때, 나를 아주 불쌍하거나 이상한 아이처럼 보여주지 말아주세요.
1. 내가 얼마나 힘든 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도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잘 이겨내고 있는 지, 내가 얼마나 씩씩한 아이인지도 보여주세요.
1.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의심하는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십대의 성과 젠더감수성

## 십대의 성, 젠더감수성으로 대화하기

십대는 자신을 더욱 알아가고, 사회와 더욱 폭넓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한편 사회의 성별규범에 맞춰 살도록 학습되고 요구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성인들은 십대의 성을 사회의 성별규범 안에서 '문제'로만 해석하면서 불안해할 뿐, 십대의 성을 십대의 성장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할 삶의 요소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들, 학교, 사회가 십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십대의 성을 둘러싼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강의는 십대가 성을 삶의 한 요소로 긍정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인들과 사회가 십대의 성과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 ● 강의 주제

- 십대의 성과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며 젠더감수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십대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가 된다.

### ● 강의 목표

- 성별화된 십대의 성과 성 문화를 이해한다.
- 십대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로서 방법을 모색한다.

### ● 강의 대상 및 활용

- 부모, 교사 등 십대와 만나는 성인집단 대상 성교육

### ● 강의 환경

- 동영상 및 시각자료 시청 가능
- 모둠 토론 가능

### ● 강의 소요시간

- 90분

### ● 강의 지침

- 강의 전 교육 참여자들이 만나는 십대의 특성을 파악한다.
- 교육 참여자들의 공동체 (학교, 마을 등)에서 주제와 관련한 이슈가 있는지 반드시 살핀다.
- 교육 참여자들이 충분히 자기를 성찰할 수 있도록 1강 또는 2강 수강 후 본 강의를 들도록 권장한다.

### ● 강의 요약

단계	목표	핵심메시지	준비물	소요시간
도입	인사 나누기 강의 주제 소개하기	사회변화로 십대의 삶은 달라지고 있다.		10분
전개1	성별화된 십대의 성장 과정 이해하기	십대는 성별화된 성장과정을 경험한다.		10분
전개2	성별화된 십대의 성 이해하기	십대의 성적 경험은 성별화 되어있다.	활동지 필기도구	30분
전개3	십대의 성장을 위한 조력 방법 모색하기	십대가 성별규범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 구 성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위 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활동지 필기도구	30분
맺음	십대의 성장을 위한 책임과 역할 이해하기	십대의 성장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 심과 책임이 필요하다.		10분

● 도입

인사 나누기, 강의 주제 소개하기

● 핵심 메시지

사회변화로 십대의 삶은 달라지고 있다.

강사는 자신을 소개하며 교육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이번 강의는 십대의 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십대의 성장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임을 설명한다.

**1**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의 흥미를 집중하고 십대에 대한 평소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누기 위해, 십대(문화)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이미지, 미디어를 통해 접한 십대의 모습을 질문하고 함께 이야기한다. 이때 연애, 인터넷문화, 게임, 팬덤 등 십대 문화와 관련한 사진이나 신문 기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2**

이어서 강사는 연애, 놀이문화, 방과 후 활동 등과 관련한 교육 참여자들의 십대 경험이 현재의 십대와 어떻게 다른지 묻고 답변을 듣는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활용해 교육 참여자들이 십대일 때와 현재 십대의 일상이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1) 현재 십대의 놀이문화, 연애문화, 외모 가꾸기 등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십대 또래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현재 십대의 놀이문화, 연애문화, 외모 가꾸기,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소비시장과 성 담론, 인터넷의 대중화와 케이블채널의 등장, 미디어 다원화 등의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2) 또한 소비공간과 대중문화, 인터넷 공간 등의 출현은 십대에게 '학생' 외에도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전의 십대가 교사와 부모 등 가까운 성인들에게서 정보를 획득했다면, 현재는 대중문화, 인터넷 공간, 해외문화를 통해 배움의 장이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성' 담론이 십대문화에 보다 많이 침투해가면서, 십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대의 성과 성 문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3**

교육 과정에서 교육 참여자들이 함께 지킬 약속을 담은 안내지를 배부하고 내용을 함께 읽는다.

● 전개 1

성별화된 십대의 성장과정 이해하기

● 핵심 메시지

십대는 성별화된 성장과정을 경험한다.

1

강사는 십대들이 성장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성별체계를 학습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성별규범을 몸과 태도에 익히는 성별화 과정을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성별화 과정은 가족, 학교, 사회, 미디어 등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2

성별화 과정을 통해 십대 여성과 십대 남성은 달리 길러지는데, 예컨대 초경을 하면 서부터 십대 여성에게는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십대 여성이 성적 정보에 노출될까 봐 걱정하지만, 십대 남성이 자위를 하거나 야동(포르노)을 보는 등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은 ‘남자가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 욕망이 더 강하다는 통념이 작동하고, 여성보다 남성에게 성적으로 더 관대한 문화에서 십대 여성의 성적 욕망이나 실천이 십대 남성에 비해 드러나지 않고, 없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규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3

교육 참여자들이 성에 관련해 십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묻고 대답을 들어본다. 특히 복장단속, 두발단속 등의 외모 관리와 연애문화에 대한 교육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끌어내면 효과적이다.

강사는 부모나 교사 등 성인들이 십대 여성과 십대 남성에게 각기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십대 남성보다 십대 여성에게 더욱 엄격하게 몸과 성을 규제하거나 훈육(반진교리나 속옷 검사, 구두 검사 등)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전달한다.

이뿐 아니라 십대들은 또래문화를 통해서도 성별화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성적 경험이 많은 십대 여성을 ‘걸레’로 부르며 낙인찍는 또래문화를 통해 십대들은 여성에게 적합한 성적 행동이나 태도를 익히게 되고, 적합하지 않게 행동했을 때는 처벌받는다라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또래문화에서 통용되는 성적 낙인은 십대 여성들이 스스로 성을 통제하게 할 만큼 강력하다고 설명한다.

#### **4**

십대들의 성별화된 성장과정은 십대가 ‘나다움’을 발견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것을 돕기보다, 사회가 원하는 틀에 맞춰 살아가도록 강요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는 십대는 자신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며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 전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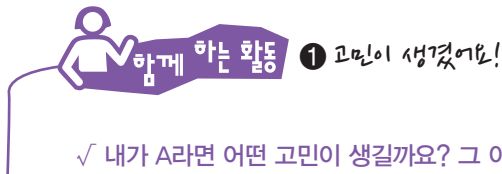
성별화된 십대의 성 이해하기

● 핵심 메시지

십대의 성적 경험은 성별화 되어있다.

1

십대의 성과 관련한 이슈(‘십대의 연애와 스킨십’, ‘십대 임신’, ‘또래 성폭력’ 등)를 담은 신문기사나 사례, 통계 등을 시각자료나 유인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을 모듈별로 토론하도록 한다. 전체 인원에게 따라 4~6명으로 모듈을 구성하고, 모듈별로 토론 시간을 준다. 전체 사례를 다루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 참여자 수와 시간을 고려하여 모듈별로 서로 다른 하나의 사례를 토론하도록 하고 토론 내용을 공유한다. 토론 자료는 아래의 예시 자료 외에도 근접한 내용의 뉴스나 영화, 드라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 내가 A라면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내가 B라면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례 1

A는 며칠 전 집 앞에서 십대인 딸 B가 또래청소년과 키스하는 모습을 보았다.

사례 2

고등학교 교사인 A는 최근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 B와 상담을 하다가 B가 임신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례 3

A는 며칠 전 방 안에서 십대인 아들 B가 또래청소년들과 서로 성기를 만지며 장난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 2

토론과 내용 작성이 끝나면 모듈별로 토론 내용을 발표한다. 시간을 고려하여 몇몇 모듈만 발표해도 좋다. 강사는 우리가 십대의 성과 관련된 이슈를 대부분 ‘문제’ 또는 ‘걱정거리’로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짚어준다. 그러나 십대들이 자신의 성과 관련된 이슈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고 대처할 수 있게 하려면, 걱정하고 금지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십대의 입장이 되어 십대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고 십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십대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강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 참여자들이 십대의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대의 성적 경험이 차별적인 성규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례에서 A는 십대의 보호자나 조력자 입장, B는 십대 당사자의 입장임을 유의하여 토론에 임하도록 안내한다.

### 1) 십대의 연애와 스킨십

성인들은 십대의 연애를 학습방해나 성관계, 임신으로 연상한다는 점을 공유한다. 이것은 성인중심의 사회가 십대의 성적 욕망을 ‘정상적인’ 성인의 것과 대비되는, 미성숙하고 위험한 것으로 낙인찍는 방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십대의 성에 대한 이 같은 편견과 몰이해는 십대가 자연스럽게 익히고 고민해야 할 성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스크를 통해 왜곡된 방식으로 성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점을 설명한다.

따라서 성인들이 십대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자신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십대의 연애문화를 이해하고, 십대에게 성과 연애를 차단하려하기보다는 연애상대와 상호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남성 주도의 (이성애) 연애관계만이 정상이라고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십대는 남성이 여성을 리드하고, 여성은 남성을 돌봐주는 ‘이성애 연애각본’에 익숙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학교와 가족 내에서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십대 여성이라도 연애관계에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십대 남성은 성적 행동과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 성적 행동에서 충분히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평등한 성적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며, 서로의 솔직한 욕구와 기분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해 데이트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 2) 십대임신

십대임신이 ‘낙태’, ‘영아살해’ 등과 같이 사회적 문제로만 다뤄지고 있어 성인들이 어떻게 임신 상황에 개입할 수 있을지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임신한 B의 현재 고민을 생각해보면서 적절한 도움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십대임신을 둘러싼 학교와 사회의 낙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은 대부분 임신한 십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임신과정에 참여한 십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는 삭제된 채 임신한 십대 여성만을 비난하고 외면하는 것은 당사자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보다는 임신 지속 여부와 관련한 의료적 지원, 출산할 경우 필요한 자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학벌사회에서 학력은 사회로 진입하는 기본적 통로가 되고 있는 만큼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십대임신은 피임 실천에 작동하는 성별화된 연애관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한다. 피임법을 알고 있더라도, ‘(이성애) 연애각본’에 따라 성적으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십대 여성은 임신이 걱정되어도 적극적으로 피임을 제안하지 못하고, 십대 남성은 임신에 대한 무관심과 왜곡된 성적 정보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는 현실을 설명한다. 즉 성적 관계에서 십대 여성의 협상력이 십대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성관계와 같은 성적 행동도 대부분 십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십대 남성에게 임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더욱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 3) 또래 간 성폭력과 성적 놀이

사례 내용은 또래 청소년 사이의 성적 놀이일 수도 있고 성폭력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침대 시기에는 타인의 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질 수 있고, 서로 성기를 비교해보거나 신체를 만져보기도 하기 때문에, 침대의 성적 행동을 모두 성폭력이라고 재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성적 놀이라고 해도 관계에 따라 불편하거나 불쾌할 수 있는데, 성적 놀이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거나 나이가 적은 또래를 놀리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폭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침대 남성 간의 성폭력은 또래집단 안에서 한 침대 남성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지목하며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남성다움’의 강요는 개인에게 폭력적일 뿐 아니라 ‘남성다움’에 관한 왜곡된 성별규범을 확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성폭력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는 통념 때문에 침대 남성 간의 성폭력은 사소화 되거나, 성폭력으로 명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한다. 또한 피해를 경험한 남성이 자신의 남성성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것이라고 느껴 드러내고 문제제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래 간 발생하는 성폭력은 또래 집단 안에서 상대적으로 힘과 권력이 약한 구성원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상대를 놀리거나, 집단에서 배제시키거나, 굴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또래집단의 놀이나 농담, 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중단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성 간 발생하는 또래 성폭력은 침대 남성과 침대 여성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남성성’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성성’을 각각 익히면서 서로 상호적이고 평등한 친밀성을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특히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주체로 인정받는 침대 남성은 성적 행동이나 관계에서 침대 여성에 비해 타인을 존중하거나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침대 여성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평등하지 않은 의사소통이 계속된다면 또래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십대의 성장을 위한 조력 방법 모색하기

● 핵심 메시지

십대가 성별규범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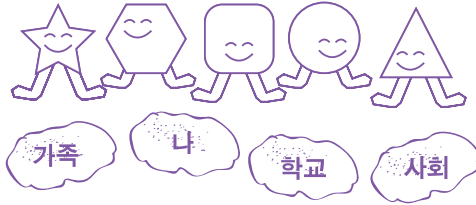
강사는 성인들이 십대가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성적 경험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나아가 자유롭고 행복한 십대를 보내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십대가 성적 실천을 하는 주체임을 인정하고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열린 태도를 바탕으로 십대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가족, 학교, 사회는 십대가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성별규범을 몸과 마음에 익히도록 교육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2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에게 <함께 하는 활동 ② 십대를 위한 디딤돌 쌓기>를 통해 십대의 성장을 위해 자신 뿐 아니라 가족, 학교,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것을 제안한다. 십대가 성장과정에서 사회가 원하는 틀 안에서 자신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다움’을 발견하고,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조력자인 성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때 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점검해보는 것, 가족 구성원이 서로 대화하며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것, 학교가 성교육이나 피임교육 등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제안하는 것, 십대를 위한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해주면 토론에 도움이 된다.


**② 십대를 위한 디딤돌 쌓기**  
 성별규범에 제한되지 않는 십대의 성장을 위하여 나와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 봅시다.



가족 :	나 :
학교 :	사회(마을 국가 등) :

**3**

토론 내용 작성 후 모듈별로 작성 내용을 발표하여 십대의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 맺음

---

십대의 성장을 위한 책임과 역할 이해하기

● 핵심 메시지

십대의 성장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책임이 필요하다.

---

**1**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에게 토론으로 나눈 아이디어들을 반드시 실천해볼 것을 당부하고, 강의 내용을 요약한다. 십대는 자신의 의지나 삶의 지향과 상관없이 사회가 강요하는 성별규범에 맞춰 살도록 학습되고 요구받는 시기이므로, 십대 주변의 성인들, 학교, 사회는 십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대의 삶을 이해하고,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조건을 바꿔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 강의 중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Q** 성별에 따라 다른 태도나 조언을 해야 하나요? 동일한 태도와 조언을 하는 것이 더 평등한 자세일까요?

**A** 평등은 여성과 남성을 모든 점에서 똑같이 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하게'와 '똑같이'는 다른 의미라고 설명한다. 성별화된 사회에서 심대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현실에 살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심대에게 성관계와 피임에 대해 조언할 때, 심대 여성에게는 더 주체적으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여 동의나 거절을 하도록 조언할 수 있겠지만, 심대 남성에게는 자신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더 묻고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심대 여성과 심대 남성에게 요구되는 각기 다른 성적 태도와 그로 인해 이들이 갖게 되는 성 인식을 고려한 것임을 설명한다.

**Q** 평소에 말도 잘 안하는 사춘기인 심대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 평소 대화하지 않는 부모가 심대 자녀에게 연애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심대 자녀는 감시나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대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심대와 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평소 자주 대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로 존중하며 일상의 고민을 나누다보면 심대 자녀의 연애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때 심대 자녀의 성적 관계를 반드시 존중하여 지나치게 자세히 따져 묻지 말아야 하며, 부모의 호기심, 그리고 심대 자녀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연애 등 성적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고,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일상적인 대화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심대 자녀와 대화를 시작했다면 '누가 연애상대인지', '연애상대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 나누고 '언제 어떻게 성적 행동을 하고 싶은지', '피임법은 잘 알고 있는지' 등 성적 행동과 관계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다면 섹스, 피임, 임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심대 자녀는 "그런 이야기를 왜 묻느냐"며 대화를 피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적절한 질문과 대화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성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고 미리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 실제 상황에 놓였을 때도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Q**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런 상황을 두고 "학생의 엄마에게도 상처를 주어 상황이 커질 수 있다.", "아이의 힘든 상태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만한 보호자는 없으니까, 부모에게 알리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 당사자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성폭력 사건에서



는 피해자의 의견이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므로, 청소년이 절대로 부모에게 알리기 싫어하는 이유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만약, '나한테 실망할 것 같아서', 또는 '부모님이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라고 한다면 이러한 십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가 힘껏 도와주고, 비로소 십대가 스스로 부모에게 이야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한다. 성폭력 경험을 둘러싼 크고 작은 걱정들까지 살펴보는 것이 성폭력을 경험한 십대를 지원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전달한다.

성폭력을 경험한 십대 스스로가 피해 이후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주변인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건을 잊으라고 말하며 덮어두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주변인의 지지가 피해 당사자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 관련자료 .....

##### ☞ 책

- 『소녀 멘토링 가이드』 카라 파인 저, 이현정 옮김, 또하나의문화, 2007
-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변혜정 외,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기획, 동녘, 2010
-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 변혜정 역음,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동녘, 2006  
중에서 미혼모의 섹슈얼리티 (욕구와 책임의 성별화에서 벗어나기)
- 『남자의 탄생』 전인권, 푸른숲, 2003
- 『소녀들의 전쟁』 레이첼 시몬스, 권은정 옮김, 홍익출판사, 2002
- 『마돈나의 이중적 의미』 프리가 하우거, 박영옥 옮김, 인간사랑, 1997

##### ☞ 영화

- 〈주노〉 제이슨 라이트먼, 95분, 미국, 2007



일터 내 성폭력과 젠더감수성

## 성폭력 없는 일터 함께 만들기

일터는 일상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노동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한편 '직장내 성폭력'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는 성인 대상 성폭력 중 매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터는 누구나 성폭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사회적 자존감을 하락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며, 일터의 인간관계를 훼손해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일터가 우리에게 중요한 공간인 만큼 일터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더욱 대처하기 어렵고, 성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때문에 성폭력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개인의 잘못이나 불행이 아니라 일터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구성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다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강의는 이를 위해 일터의 구성원들이 자신과 조직문화를 돌아보고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 강의 주제

- 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성찰하여 조직의 젠더감수성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성폭력 없는 일터를 만든다.

● 강의 목표

- 일터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원인을 이해한다.
- 성폭력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와 실천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색한다.

● 강의 대상 및 활용

- 일터 구성원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 강의 환경

- 동영상 및 시각자료 시청 가능
- 모둠 작업 가능

● 강의 소요시간

- 90분

● 강의 지침

-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유형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성폭력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과 조직 문화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 참여자들이 성폭력 없는 일터를 만드는 주체임을 강조해야 한다.
- 강의 전, 미리 강의 담당자에게 조직의 특성, 업종, 성별 구성, 조직 문화나 분위기, 관련 사건의 유무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강의에서 적절하게 사례로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강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대규모 강의보다는 20~30명 이하의 중, 소규모로 직급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대규모로 강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규모와 환경에 따라 교육 참여자들의 참가 방식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강의 요약

단계	목표	핵심메시지	준비물	소요시간
도입	인사 나누기 강의 주제 소개하기	일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일터의 인간관계를 훼손해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10분
전개 1	구성원들의 일터 내 위치와 성폭력의 관계 이해하기	일터 구성원 사이의 권력관계는 성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활동지 필기도구	20분
전개 2	조직문화와 성폭력과의 관계 이해하기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는 성폭력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활동지 탈착식 메모지 2종 필기도구	25분
전개 3	성폭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책임과 역할 이해하기	일터 내 성폭력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지 필기도구	20분
맺음	성폭력 없는 일터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모색하기	일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로 해결할 수 있다.	활동지 필기도구	15분

● 도입

인사 나누기, 강의 주제 소개하기

● 핵심 메시지

일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일터의 인간관계를 훼손해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강사는 자신을 소개하며 교육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번 강의에서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임을 설명한다.

**1**

강사는 일터가 일상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공동체임을 설명하고,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사회적 자존감을 하락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며, 일터의 인간관계를 훼손해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임을 설명한다. 이때 강사는 성폭력, 성희롱,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에 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다.

**2**

강사는 일터에서 성폭력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면 당시 상황을 간단히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이때 강사가 직장 내 성폭력 사례들(회식에서 술 따르기 강요, 외모 평가, 음담패설 등)을 간단히 제시해도 좋으며, 교육 참여자들이 일터 성폭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이번 강의를 통해 일터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고 성폭력 없는 일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볼 것임을 설명한다.

**3**

교육 과정에서 교육 참여자들이 함께 지킬 약속을 담은 안내지를 배부하고 내용을 함께 읽는다.

구성원들의 일터 내 위치(직급, 나이, 성별, 고용상태 등)와 성폭력의 관계 이해하기

● 핵심 메시지

일터 구성원 사이의 권력관계는 성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1

강사는 먼저 교육 참여자들에게 세 가지 직장 내 성폭력 사례를 유인물 또는 시각자료로 제시하고, 이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제안한다. 이때 제시하는 사례는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로 변경해도 좋다.

사례 1

고위 공직자 Y씨(남, 50대)는 출장지에서 인턴 A씨(여, 20대)에게 이야기를 나누자며 밤늦게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러 대화를 나누던 중 A씨의 엉덩이를 만졌다.

사례 2

A회사의 부장 K씨(남, 40대)는 하청업체 직원 H씨(남, 30대)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H씨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어젯밤에 여자친구랑 뭘 했길래 피곤해 하나?'며 '자세히 이야기해보라'는 말을 했다.

사례 3

B고교 교감 P씨(남, 60대)는 신입교사 D씨(여, 30대)에게 실습 관련 이야기를 나누자며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딸 같아서 귀엽다'며 D씨의 손을 만지고 어깨를 쓰다듬는 등의 신체접촉을 했다.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에게 사례 속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성별, 고용상태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사례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교육 참여자들에게 묻고 답변을 들어본다. 사례처럼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 비해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고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용이나 인사, 업무에 대한 결정권이 있거나 영향력이 큰 경우가 대부분임을 설명한다. 성폭력을 '이상한' 몇몇 가해자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받아들일 경우, 가해자의 평소 행동에 대한 주변인의 판단이 성폭력피해자의 피해 경험을 압도하여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조직의 잘못된 성 문화가 큰 원인임을 설명하고, 일터 구성원들 사이 힘의 차이, 즉 권력관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 2

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활동지를 작성해보면서 일터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는 어떠한고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이는 일터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위치, 권력관계를 파악해보면서 일터 성폭력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위한 것임을 설명한다.



### ① 나는 일터에서 '누구' 인가요?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나의 조건을 적어보고  
일터에서 나의 위치와 동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 ① 나는 \_\_\_\_ 세 이다.  
내 나이는 일터에서  어린 편  평균  많은 편이다.
- ② 나는 입사한 지 \_\_\_\_ 년 되었다.  
나의 입사 연차는 일터에서  짧은 편  보통  긴 편이다.
- ③ 나의 직급은 \_\_\_\_ 이다.  
나의 직급은 다른 동료들의 업무, 고용, 승진, 인사고과 등에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  보통이다  거의 미치지 않는다
- ④ 나의 고용상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일용직  기타 이다.
- ⑤ 나의 성별은 \_\_\_\_ 이다.(예: 여자, 남자, 혹은 이 둘에 포함되지 않는 성)  
일터의 동료들의 성별은  대부분 나와 같은 성별이다.  
 대부분 다른 성별이다.  다양하다.
- ⑥ 나는 \_\_\_\_ 에 장애가 있다. (예: 다리, 시각, 청각, 길 찾기 등)
- ⑦ 나는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일터의 동료들은  대부분 결혼상태다.  대부분 결혼하지 않았다.  다양하다.

## 3

활동지 작성을 통해 교육 참여자들이 자신과 동료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보도록 하고, 같은 일터에서 일하지만 구성원 사이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일터에서 겪는 경험의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신입직원, 관리직, 고용주 등 직급에 따라 업무내용이나 역할 등에 관한 경험

이 서로 다르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고용상태에 따라 같은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급여 차이가 있거나 고용안정과 관련해 느끼는 불안감이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또한 결혼 상태에 있는 구성원들과 달리 결혼하지 않은 구성원들은 ‘빨리 결혼하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듣거나 ‘어딘가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 받는 등 일터에서의 경험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 4

직급이나, 나이, 성별, 고용상태, 장애여부 등의 차이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비롯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의 주요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 나이가 많거나 남성이거나 나의 업무평가나 고용을 좌우할 수 있는 직장 상사가 성적인 언행을 했을 경우(예: ‘업무시간 후에 단둘이 만나자’고 하는 경우, ‘00씨는 몸매가 좋다’며 외모에 대해 말할 경우 등) 그러한 언행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이가 더 적거나 여성이거나 후배, 낮은 직급의 동료와 같은 언행을 했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도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가능하다면 교육 참여자 중 몇 명이 직접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 5

같은 말이나 행동도 나와 상대방이 누구이며 어떤 조건에 있는가에 따라 그 말과 행동이 다르게 느껴지고 나와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직급, 나이, 성별, 고용상태, 장애여부 등에 존재하는 힘의 차이, 즉 권력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권력이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힘을 의미하며, 특히 일터에서는 상대방의 고용이나 인사고과, 평가,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유무가 일상적인 태도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1) 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터에서 나이가 많거나, 남성이거나, 고용과 업무평가 등을 담당하는 고용주나 직장 상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을 동등한 동료로 대우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 또는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상대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더 적거나 여성이거나 비정규직인 구성원들은 부당한 대우나 차별, 폭력이 있더라도 업무평가나, 고용계약 등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문제제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위계적 관계는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권력이 적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며, 일터 성폭력도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2) 실제로 일터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고용주나, 관리직, 선배, 비장애인, 정규직 직원, 남성이고, 피해자는 피고용자, 나이가 적거나 직급이 낮은 직원, 비정규직 직원, 여성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사실은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가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3) 특히 과거에 비해 한국사회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직급이나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고(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61.8%로 남성의 1.5배, 출처: 통계청 2012), 임원이나 관리직은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한국기업 여성임원비율 1.9%, 출처: 미국 기업지배구조 분석기관 GMI레이팅스, 2013)은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성폭력에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 6

여기서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이 다시 한 번 조직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환기한다. 이때 강사가 미리 해당 일터의 성별, 연령, 직급 등의 구성을 알고 있다면, 해당 일터의 구성이 어떤지 이야기해주고 그 안에서 각자의 위치를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다. 그리고 교육 참여자들에게 상대방보다 자신의 권력이 더 큰 관계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상대방에 비해 권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해도 ‘어쩔 수 없다’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참기만 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 조직문화와 성폭력과의 관계 이해하기

● 핵심 메시지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는 성폭력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 1

일터에는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고유한 조직문화와 특징이 있으며, 조직문화에 따라 일터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위계가 강하고 성차별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조직에서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조직문화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권력이 적은 구성원들, 즉 나이가 적거나, 직급이 낮거나, 여성이거나, 비정규직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비롯한 부당한 대우나 차별,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또한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가 팽배한 조직 안에서는 성폭력피해자가 업무평가나 고용계약 등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성폭력이 드러나기 어렵고, 드러나더라도 피해자를 돕기보다는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고립되기 쉽다는 것을 알린다. 특히 여성을 동등한 동료로 여기기보다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경향이 강한 조직일수록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강조한다.

### 2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성원들 스스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강의를 통해 조직문화를 점검해볼 것을 제안한다.

일터의 조직문화를 점검해보고, 조직문화가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함께하는 활동② ‘우리 OO(회사, 단체명) 조직문화 어떤가요?’> 활동지를 각자 작성해볼 것을 제안한다. 작성한 내용 중 동료들과 공유하고 싶은 조직문화의 장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한 가지씩 선택해 미리 나누어 준 탈착식 메모지 중 색깔을 정해 한 쪽 메모지에는 장점을, 다른 한쪽에는 단점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 ② 우리 OO(회사, 단체명) 조직문화 어떤가요?

질문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의 성별, 연령, 직급, 고용상태 등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 ① 일터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정시 퇴근이 가능한가요? \_\_\_\_\_
- ② 회식 일정이나 메뉴, 회식 참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나요? \_\_\_\_\_
- ③ 회식 할 때 고기를 굽거나 수저 놓기는 주로 누가 담당하나요? \_\_\_\_\_
- ④ 식사나 회식자리에서 식사비는 주로 누가 부담하나요? \_\_\_\_\_
- ⑤ 일터에서 누가 누구에게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하나요? \_\_\_\_\_
- ⑥ 일터의 동료들(상사, 동기, 후배 등)은 나를 어떻게 부르나요(호칭)? \_\_\_\_\_
- ⑦ 차 심부름, 복사 등 소위 '잡무'라 불리는 일들은 주로 누가 담당하나요? \_\_\_\_\_
- ⑧ 직장 상사에게 업무상 불만이나 불편한 점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나요? \_\_\_\_\_
- ⑨ 휴가날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나요? \_\_\_\_\_
- ⑩ 일터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가 듣고 싶지 않은 성적 농담이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예: “몸매 죽이는데?”, “애인이랑 어디까지 갔어?” 등)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나요? \_\_\_\_\_
- ⑪ 일터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남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나 부당한 일이 있나요? \_\_\_\_\_

### 3

1) 강사는 수합한 메모지를 장단점별, 주제별로 모아 붙여두고, 교육 참여자들과 공유하기 전에 미리 구체적 내용 및 경향, 특이점 등을 파악한다. 특히 어떤 구성원이 개선할 점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다른 구성원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본다.

2) 이어서 강사는 참여자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먼저 공유한다. 이때 일터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권위적이거나 위계적인 분위기, 남성중심적이고 불평등한 문화, 일방적인 소통 구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조직의 장점을 설명할 때는 평등하고 상호적인 소통,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 강사는 조직의 장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면서 해당 조직이 어떤 문화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교육 참여자들이 개선할 점 또는 문제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들 뿐 아니라 조직 전체가 다시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나이가 적거나 직급이 낮거나, 여성인 직원에게 무조건 말을 낮추지는 않는지, 회식 일정이나 메뉴는 직급이 높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결정하지는 않는지, 또 회식자리에서 나이가 어린 직원이나 여성 직원들이 수저 놓거나 고기 굽기를 당연하게 담당해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면서 (교육 참여자들이 써낸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부분들을 점검해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일방적이고 상명하복식의 위계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면, 구성원들 모두가 상호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로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구성원들이 장점으로 꼽은 부분을 살펴보고, 그러한 부분이 조직에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4) 만약 어떤 구성원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성원은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누군가는 ‘서로 반말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분위기’가 조직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친밀함을 강조하는 조직문화가 불편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구성원들이 서로 조직문화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어느 한 쪽의 의견만을 중요하다고 강요하기보다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자신의 언행이나 태도, 조직 분위기를 다시 점검해볼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 4

강사는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일터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일방적이고 상명하복식의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평등하고 상호적으로 소통하는 문화로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일터 구성원이 서로의 다른 위치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조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교육 참여자들에게 회식자리에서 고기 굽기, 수저 놓기를 함께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지 않고,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보다 적은 동료들에게 무조건 반말하지 않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등과 같이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보다 상호적이고 평등한 업무평가방식과 업무배치방식, 차별이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성폭력 예방교육 등과 같이 조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 성폭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책임과 역할 이해하기

### ● 핵심 메시지

일터 내 성폭력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일터 성폭력이 피해자의 사회적 자존감을 하락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며, 일터의 인간관계를 훼손해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터 성폭력은 가해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묵인하고 방관해온 일터 구성원들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 2

강사는 아래 <함께하는 활동③ 일터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활동지를 활용하여 교육 참여자들이 사례 당사자거나 주변인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모둠별로 토론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전체 사례를 다루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 참여자 수와 시간을 고려하여 모둠별로 서로 다른 하나의 사례를 토론하도록 하고 토론 내용을 공유한다. 교육 참여자 수가 많아 모둠별 토론이 어려울 경우에는 잠시 각자 생각해볼 시간을 준 후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 ③ 일터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나의 조건을 적어보고  
일터에서 나의 위치와 동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 사례 1 \_ A부장의 고민

“인터넷에서 성적인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고, 직원들과 나누고 싶어서 직원들에게 전체 이메일을 보냈다. 모두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건데 성희롱이라며 불쾌하다는 직원들이 인사팀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된 걸까?”

#### 사례 2 \_ B사원의 고민

“부장님 옆에는 어린 여직원들이 앉아야 한다며 회식자리에서 매번 부장님 옆에 앉으라는 과장님 때문에 불편하다. 남들은 다들 웃어넘기는데 내가 예민한 걸까?”

#### 사례 3 \_ C대리의 고민

“동료 대리 A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그런데 A가 나보고 피해자인 후배에게 좋게 말해달라고 한다. 자기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친해지려고 그런 것이니 좋게 해결하고 싶다는데, 피해자인 후배도 잘 아는 사이여서 곤란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 3

강사는 토론 내용을 들어보고, 일터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터 구성원들이 일터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고,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때 성폭력의 유형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거나 부추기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태도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사례1 \_ A부장의 고민

위의 사례처럼 좋은 의도에서 또는 일터 분위기를 즐겁고 부드럽게 만들겠다는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성적인 농담이나 장난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어떤 농담이나 장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 때문에 불쾌하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말 걸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자신이 일터에서 상사 또는 관리자, 선배의 위치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언행 때문에 느끼는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2) 사례2 \_ B사원의 고민

우선 이런 상황을 겪게 되거나 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교육 참여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본다. 일터에서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여성들이 ‘너무 예민하다’거나 ‘사회생활 못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우려해 정색하며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B사원이 겪고 있는 상황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용기 있고 정당한 행동이라고 강조한다.

B사원이 직접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고, 그러한 행동이 문제되지 않는 조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계가 강하고 성차별적인 조직이라면 B사원이 혼자 직접 문제제기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설명한다. 따라서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위와 같은 상황을 중단하기 위해 주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주변 동료들도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선배나 동료들이 함께 문제제기를 해주거나 다른 방식의 회식 자리 배치를 제안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즐거운 회식문화를 위한 조직의 규칙을 만들어 보는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이런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평소 일터 조직문화 속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구성원들은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성찰하고, 자신도 과장의 행동을 부추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 3) 사례3 \_ C대리의 고민

교육 참여자들에게 만약 자신이 C대리라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대리에게 어떻게 조언할 것인지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본다. 많은 경우 일터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문제제기 하더라도 동료들이 나서서 돕는 경우가 드물고, 심지어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느냐’며 비난하고 은근히 따돌리거나 관련 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2차 가해로 오히려 피해자가 더욱 고통 받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만약 동료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예민하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참고 넘어가라’고 하기보다는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위 사례처럼 친한 동료의 가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옹호하기보다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도 고립되지 않도록 주변에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동료나 선배들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피해자, 평소 노동자의 복지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동료들을 찾아 인맥을 형성하고 여론을 만들면 사건해결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3

앞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일터 성폭력은 구성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하고, 그것은 나 자신의 일상과 습관 태도, 동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바뀌어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성폭력 없는 일터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모색하기

일터에서의 성폭력은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로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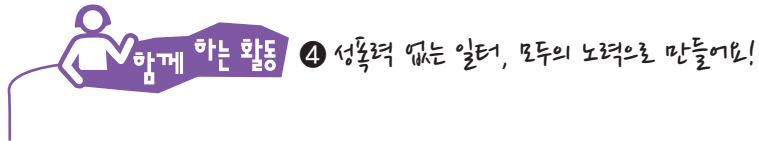
### 1

마지막으로 성폭력 없는 일터를 위해 구성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함께 모색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 때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던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제시해주면 교육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조직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적 문화, 남성중심적인 문화, 위계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기 강요하지 않기, 서로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지 않기, 음담패설 하지 않기, 나이가 보다 적거나 직급이 낮다고 무조건 반말하지 않기, 식사 시 수저 놓거나 고기 굽기는 다 같이 하기,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반성폭력 내규 만들기 등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교육 참여자들에게 성폭력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나(우리)의 다짐’을 써보도록 한다. 모듈작업이 가능할 경우 모듈 별로 함께 만들어보도록 한다.

작성 후, 나/우리의 다짐을 발표하거나 돌려보며 성폭력 없는 일터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 참여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눈다.





### 〈나/우리의 다짐〉

나 000은(는)/우리는 성폭력 없는 일터를 위해

를(을) 하겠습니다.

## 2

교육 참여자들이 작성한 다짐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평등하고 평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성폭력 없는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마무리한다.



강사를 위한 소중한 TIP

강의 중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Q**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도 성희롱인가요?”,  
“몸매 좋다고 칭찬하는 것도 성희롱인가요?”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강사에게 판단해달라고 할 때**

**A**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듣는 사람과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의미와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예를 들어 ①남자 부장이 신입 여사원인 나에게, ②‘갑’인 거래처 직원이 ‘을’인 나에게, 또는 ③동성의 회사동기가 나에게 위 질문과 같은 언행을 했을 때, 같은 행동이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신입사원의 업무 배치나 평가, 고용여부 등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장과, 회사의 중요한 계약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갑’인 거래처 직원은 동성의 회사동기와 달리 나의 업무, 회사의 이익 등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문제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임을 설명한다. 즉, 계약이나 평가, 회사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나에게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의 권력이 다르고 그에 따라 각각의 관계가 내포한 폭력의 가능성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동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따라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말이나 행동의 내용 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및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무조건 피해자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특정 상황을 피해라고 느끼는 이유를 가해자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을 설명한다.

**Q** “여사원들에게 차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성희롱인가요?”

**성차별과 성폭력의 차이에 대해 질문할 때**

**A** 차 심부름이나 복사 등 소위 ‘잡무’를 여성 직원들에게만 시키는 것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업무를 ‘비전문적 잡무’로 폄하하고 여성에게 떠맡기는 성차별이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차별이나 폭력, 억울한 경험과 고충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수많은 부당한 경험들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영역인 성희롱·성폭력으로 뭉뚱그려 표현하게 되는 현실을 설명한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인 조직에서 여성들을 소외시키고 위축시키기 위한 차별이나 농담, 관행, 문화, 습관, 제도는 성희롱·성폭력과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차별의 문제를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표현할 때 ‘성희롱·성폭력’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데서 그치기보다는 여성의 경험을 대변할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행법과 제도, 그리고 가해자들의 잘못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도 자신의 경험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방

법을 찾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Q** “일터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일터에서 성폭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무언가 잘못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하고 자책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일터 안에서 해결하고 싶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회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예: 인사과, 고충처리 상담실, 여직원회, 노조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또한 사내 관련 내규가 있다면 그 내규에 따라 진상조사 및 징계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일터 밖에서 해결하기를 원할 경우, 강간이나 성추행, 불쾌한 성적 전화나 이메일, 이미지 전송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성희롱의 경우는 노동부(사업장이 있는 지방 노동 관서를 통해)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조치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알린다.

또한 가해자 뿐 아니라 사업주 역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를 상대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입은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 및 목격자 확보를 비롯하여 사업장의 특성, 고용계약상의 특성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므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노무사, 성폭력상담소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관련자료**  
.....

**\* 책**

- 『보통의 경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이매진
- 『당신 그렇게 까칠해서 직장생활 하겠어? 모두가 함께 읽는 성희롱 이야기』 박희정(2012), 길찾기
-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인권 당사자에게 묻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08)
- 『직장 내 성희롱 법제화 10년, 가야 할 길을 묻다 토론회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2008)



- 『젠더노동과 간접차별』 국미에 외(2006), 푸른사상
- 『노동과 페미니즘과』 조순경 역음(2000),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남성의 성문화를 통해 본 직장 내 성희롱 인식에 관한 연구 : 30대 대졸 사무직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은심(2010),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4집』 국가인권위원회(2011),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3집』 국가인권위원회(2010),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2009),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성희롱. 제1집』 국가인권위원회(2007), 국가인권위원회

※ **드라마**

- 〈직장의 신〉 KBS, 2013
- 〈막돼먹은 영애씨〉 TVN, 2007~현재

※ **극영화**

- 〈노스 컨트리(North Country)〉 니키 카로, 126분, 미국, 2006
- : 1984년 미국에서 최초의 직장 내 성폭력 승소 사건인 '젠슨 대 에벨레스 광산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

**참고자료**  
.....

※ **한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 <S대 교수 성희롱 사건>**

1993년, 교수로부터 지속적 성희롱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가해 교수를 상대로 승소하였다. 소송을 통해 친밀함의 표현 정도로 여겨졌던 직장 내 성적 언동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자 노동권 침해의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제정의 단초가 되었다.

\_ 관련기사: “교수의 성희롱 물어둘 수 없었다” 오마이뉴스, 2011.04.25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H사 사내하청 성희롱사건>**

2011년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증세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_ 관련기사: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산업재해 판결” 여성신문 2011-12-02

##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용 배포 자료

### ❖ 직장 내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수반하는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내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강간, 추행과 함께 ‘성희롱’도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여성들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된 것으로, 업무나 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안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행위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희롱의 개념

제3조(정의) 4.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의 개념

제2조(정의)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직장 내 성희롱 유형

● 언어적 행위

- 원치 않는 성적인 이야기나 농담을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신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성적인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이메일 등 온라인이나 팩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고용조건형

-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 (채용탈락·감봉·승진탈락·전직·정직·휴직·해고 등)을 준다고 암시 혹은 강요하거나 실제로 불이익을 주는 상황

● 환경형

- 가해자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받게 되어 업무 능률이 저하되거나 노동 환경이 악화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성희롱

그 밖에도 사회 통념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 사건해결을 위해 ①가해자와의 개인적 해결방법, ②사내 조직(노조, 여직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해결방법, ③사내 기구를 통한 해결방법, ④공공기관을 통한 해결방법(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⑤사법적 해결방법(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활용 가능한 자원, 가해자나 일터에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의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성폭력상담소나 고용평등상담실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 보관해 두고, 피해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일터에 바라는 점을 구체화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젠더감수성

#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위한 지혜 모으기

마을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마을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육아를 하고, 운동을 하거나 쉬며 일상을 재충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성폭력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아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동네 이웃들을 경계하고, 담벼락을 높이고 한여름에도 문을 닫고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보다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를 개인의 잘못이나 불행이 아니라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해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강의는 이를 위해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자신과 마을의 성 인식과 성 문화를 돌아보고, 변화를 위한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 강의 주제

- 마을의 성 문화를 돌아보고 바뀌가는 과정을 통해 마을 구성원들의 젠더감수성을 높이고, 젠더감수성을 공유하여 마을의 안전망을 만든다.

● 강의 목표

- 마을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인식한다.
- 나의 일상과 마을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폭력의 관계를 돌아본다.
- 마을에서 벌어지는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은다.

● 강의 대상 및 활용

- 지역 자치 단체 또는 마을 공동체 구성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 종교·대학·시설 등의 소규모 공동체 구성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 강의 환경

- 동영상 및 시각자료 시청 가능
- 모둠 작업 가능

● 강의 소요시간

- 60분

● 강의 지침

- 강의 전 교육 참여자들이 속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 마을/공동체의 경제적 위치와 지형적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마을/공동체 내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현상이 있는가를 반드시 살피도록 한다.
- 교육 참여자들이 충분히 자기를 성찰할 수 있도록 1강 또는 2강 수강 후 본 강의를 듣도록 권장한다.

● 강의 요약

단계	목표	핵심메시지	준비물	소요시간
도입	인사 나누기 강의 주제 소개하기	마을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은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유인물 또는 자료화면	10분
전개 1	젠더를 둘러싼 차별과 배제, 폭력의 발생 구조 이해하기	마을에서 젠더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차별과 배제, 폭력은 마을 구성원들의 계층, 장애, 성적지향, 성 문화가 상호작용하며 나타난다.	활동지 필기도구	20분
전개 2	'함께 살기' 위한 우리 마을의 지혜 찾기	마을에서 함께 살기는 마을 내부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하려는 구성원들의 지혜를 통해 가능하다.	활동지 필기도구	25분
맺음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구성원들의 책임과 역할 이해하기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5분

● 도입

인사 나누기, 강의 주제 소개하기

● 핵심 메시지

마을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은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강사는 자신을 소개하고 교육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이번 강의는 성폭력, 가정폭력과 같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젠더를 둘러싼 차별과 폭력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임을 설명한다.

제주 잠자던 10대 여아 성폭행범도 '이웃' (연합뉴스 2013-07-11)

제주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잠자던 10대 여아에게 몸쓸 짓을 하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불과 50여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던 20대 청년으로 밝혀지면서 '이웃집 아저씨'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피의자 허모(21)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는 지난 6월까지 피해자 A양과 한동네에 살면서 평소 A양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5일 새벽 A양이 집에서 혼자 잠을 자는 틈을 타 침입, A양을 폭행한 후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허씨는 그러나 피해자 집 주변 반경 200m에 24개의 폐쇄회로(CC) TV 등이 있었지만 범행을 전후해 동네 CCTV에 찍히지 않았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상당수가 사건 현장 주변에 살고 있으면서 주변 지리와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셈이다.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역시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250여m 떨어진 곳에 거주하던 이웃이었다.

황정익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통 성범죄자들이 주변 아는 인물들에게 접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 80% 이상이 주변 아는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여름철 무더위 때문에 문을 열고 자는 가정집이 많은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사회적 약자 대상 성범죄를 전담하는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운영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했고 '피해자 심리전문 수사관'을 배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 1

강사는 위 사례를 교육 참여자들에게 시각자료나 구두로 제시하고, 기사를 활용하여 본 강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시하는 사례는 강의시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유사한 내용의 기사로 변경해도 좋다.

1) 우리는 성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모순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자주 접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 없다고 믿기 때문에 성폭력을 ‘남의 일’로 여긴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가 정말 아는 사람으로 밝혀질 때, 그리고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건은 대단한 공포로 다가오는데, 이는 내 일상이 손쉽게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임을 설명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웃사람을 경계하고, 담벼락을 높이고, 한여름에도 문을 닫고 사는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2) 담벼락을 높이고 이웃을 경계하는 등 타인을 경계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정감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안전과 마을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CCTV를 늘리고 마을에 사는 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이 마을의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는 방법인지, ‘80%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성폭력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성폭력이 이례적 사건이기보다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우리는 문제의 초점을 가해자 개인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일상적 관계, 그리고 나를 비롯한 ‘아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성 문화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한다.

3) 마을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마을에서는 경제 활동과 같은 생산 활동 뿐 아니라, 쉬고 일상을 재충전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같은 재생산 활동도 함께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앞의 사례와 같은 사건들은 안전한 마을살이를 위협하고 구성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이웃사람을 더 많이 경계한다고 해서 불안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높아질 뿐임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마을의 문제로 인식하면,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넘어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설명한다.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마을의 구조와 문화를 되짚어봄으로써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를 위해 자신부터 마을 안에서 차별이나 폭력을 만들거나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건(%)>

유형 계	아는 사람 1,099(83.2%)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185(16)		직장 직장	친밀 한 관계	인 터 넷	동네 사람	서비 스 제공 자	학교	유치 원/학 원	주변 인의 지인	소개 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 인척													
	184 (13.9)	45 (3.4)	248 (18.8)	124 (9.4)	47 (3.6)	93 (7.0)	49 (3.7)	141 (10.7)	58 (4.4)	74 (5.6)	10 (0.8)	26 (2.0)	135 (10.2)	87 (6.6)	1321 (100.0)
성인 (20세 이상)	27 (3.3)	24 (2.9)	236 (28.5)	105 (12.7)	24 (2.9)	48 (5.8)	42 (5.1)	68 (8.2)	23 (2.8)	50 (6.0)	8 (1.0)	24 (2.9)	99 (12.0)	49 (5.9)	827 (100.0)
청소년 (19세-14세)	60 (22.1)	11 (4.0)	7 (2.6)	16 (5.9)	19 (7.0)	19 (7.0)	4 (1.5)	55 (21.4)	22 (8.1)	11 (4.0)	2 (0.7)	1 (0.4)	16 (5.9)	14 (5.1)	257 (100.0)
어린이 (13세-8세)	68 (47.2)	7 (4.9)	0 (0.0)	0 (0.0)	4 (2.8)	15 (10.4)	2 (1.4)	13 (9.0)	4 (2.8)	11 (7.6)	0 (0.0)	1 (0.7)	10 (6.9)	9 (6.3)	144 (100.0)
유아 (7세 이하)	27 (45.0)	3 (5.0)	0 (0.0)	0 (0.0)	0 (0.0)	11 (18.3)	0 (0.0)	0 (0.0)	8 (13.3)	2 (3.3)	0 (0.0)	0 (0.0)	5 (8.3)	4 (6.7)	60 (100.0)
미상	2 (6.1)	0 (0.0)	5 (15.2)	3 (9.1)	0 (0.0)	0 (0.0)	1 (3.0)	5 (15.2)	1 (3.0)	0 (0.0)	0 (0.0)	0 (0.0)	5 (15.2)	11 (33.3)	33 (100.0)

출처: 201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2

이어서 강사는 앞으로 진행될 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괄하여 설명한다. 이번 강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폭력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마을 또는 공동체의 성 인식과 성 문화를 돌아보고자 한다고 이야기하고, 만약 우리 마을에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화두 삼아 고민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차별과 폭력 없는 우리 마을을 위해 교육 참여자들의 지혜를 모아볼 것을 제안한다.

3

교육 과정에서 교육 참여자들이 함께 지킬 약속을 담은 안내지를 배부하고 내용을 함께 읽는다.

젠더를 둘러싼 차별과 배제, 폭력의 발생 구조 이해하기

● 핵심 메시지

마을에서 젠더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차별과 배제, 폭력은 마을 구성원들의 계층, 장애, 성적지향, 성 문화가 상호작용하며 나타난다.

1

강사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관련한 사례를 시각자료 또는 유인물로 교육 참여자들에게 제시한다. 참여자들이 함께 토론하며 해당 사례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를 파악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가능하면 모둠작업으로 진행하며, 전체 사례를 다루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 참여자 수와 시간을 고려하여 모둠 별로 서로 다른 사례를 토론하도록 하고 토론 내용을 공유하거나, 모두가 한 가지 사례를 정해 집중 토론할 수도 있다. 교육용 사례는 신문기사 등을 활용해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최근의 사례로 준비해도 좋다.

강사는 모둠별로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고, 해당 사례별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짚어준다. 이때 강사는 각 사례에 대해 좋다 혹은 나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교육 참여자와 마을 공동체의 성 의식과 성 문화를 드러내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하는 활동 ① 우리 마을에서 생긴 일

● 사례1 \_ 윗집 때문에 생긴 A의 고민

평소 층간 소음 문제가 거의 없는 우리 집. 이웃도 조용한 편이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일 주일에 한두 번씩 윗집에서 부부싸움을 격렬하게 한다. 한 번 시작되면 무거운 것을 던져서 깨뜨리는 소리가 나고, 남자가 욕하고 소리를 지르면 여자가 서럽게 대성통곡을 하는데, 몇 시간씩 계속된다. 주로 밤늦게 시작해서 새벽까지 계속되니 잠을 설치게 되어 괴롭다. 자녀가 뛰어다니는 문제면 인터폰으로 주의를 주겠는데, 부부 간의 일이니 뭐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며칠 전 우연히 윗집 여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얼굴에 멍이 들어있는 걸 봤다. 어떻게 해야 할까.

- A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내가 A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 위의 답변과 같이 행동하면 윗집 남편과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사례2 \_ 우리 마을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생긴다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SH공사의 도움을 얻어 □□동으로 이사를 준비하던 중, □□동 주민들이 ‘혐오시설 입주 반대’를 위한 연서를 모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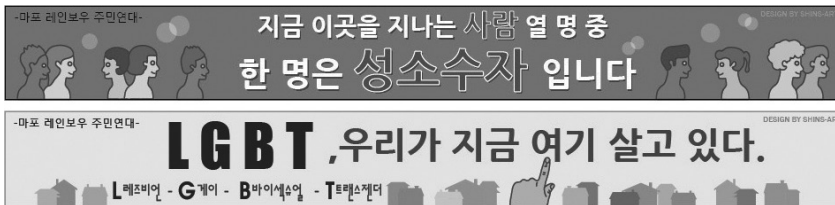
- 지역 주민들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민원을 접수한 구청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가 해당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당사자라면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 사례3 \_ 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한 마을에서, 십대 여성 B가 4년간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네 어른 5명이 지적장애(2급)가 있는 B를 성폭력 한 것이다. B의 친구의 할아버지인 가해자 C는 B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아 왔다. 또 C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주민 D는 이 사실을 또 다른 주민 E에게 알렸고, 그들은 성폭력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B를 성폭력 하는 데 가세했다. 가해자들은 B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들의 성폭력 행위는 가해자 C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C의 집을 방문해왔던 장애인 활동보조인 A의 신고로 그 전말이 드러났다. 활동보조인 A는 C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B가 함께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 마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 사례4 \_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현수막 사건



마포 지역 내 성소수자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모임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는 마포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지정 업체에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는 문구와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두 가지 문구를 전달했다. 그러나 마포구청 도시경관과는 “여기 살고 있다는 문구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현수막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의 그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수막 도안과 문구를 수정하지 않으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레연 측은 마포구청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가 지역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마포구청의 동성애 혐오적인 발언”이라 비판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 마포구청이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정당하나요?

- 내가 마포구에 사는 성소수자라면 해당 사건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 2

〈함께하는 활동 ① 우리 마을에서 생긴 일〉 사례1은 윗집의 가정폭력 사건을 층간소음 문제로 호소하는 사례로 강사는 글쓴이가 윗집에서 아이가 뛰는 것과 ‘부부싸움’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사건의 문제를 무엇으로 인식하는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때 다음 두 가지 지점을 중요하게 다룬다.

1) 한국 사회에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남이 관여하면 안 되는 집안일, 즉 사생활로 여겨진다고 이야기하고 이 때문에 A도 아이들이 뛰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층간소음’ 문제와 달리 부부 간에 일어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망설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예로 ‘아내가 아내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예컨대 가해자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없었다. 아침밥을 안 챙겨줬다. 다른 남성과 말을 섞었다.” 등의 아내의 행동을 ‘아내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이야기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이때 젠더(성별규범, 이 사례의 경우 아내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지칭함)와 폭력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력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남편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하고 여성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경우라면, 남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생활비를 안 주겠다’라고 했을 때 경제권을 갖지 못한 아내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많은 경우 집안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누워서 침 뱉기’, 수치라고 생각하고, 알려질 경우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거나,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마땅한 생계 대책을 찾기 어려워 가정폭력 피해를 쉽게 알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설명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 때문에 가정폭력을 외부로 드러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주로 남편이나 아버지 같이 가족 내에서 권력적 위치를 갖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참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가정폭력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공적인 해결과 보호 방안이 필요한 일임을 설명한다.

2)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A는 ‘층간소음’이 없었다면 윗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마 알지 못했을 것이며, 방음이나 치안 같은 사생활 보호가 중요해진 주거 환경 때문에 이웃에 누가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물론 밖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 윗집의 상황이 가벼운 다툼인지 위협적인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들리는 소리 말고는 다른 정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나에게만 피해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이 사례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고충 문제를 토로하고 있지만, 의도하지 않게 이웃에 가정 폭력이 있음을 알게 된 이웃의 걱정과 고민이기도 하다. 강사는 토론 과정에서 A를 비난하기보다는 교육 참여자들이 A의 입장이 되어보고 자신의 일상과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A가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계획해보고 각 과정에서 드는 고민을 토론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A가 경찰을 부르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때 이웃(가정폭력 피/가해자)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들(부인하기, 돌려보내기, 오해라고 하기 등)을 예상해보게 하고 그 이유(‘여자가 맞을 짓을 했다’, 집안의 수치, 동네 소문 등 여성을 비난하는 문화)를 생각해보게 한다. 강사는 층간소음이 가정 내 폭력을 ‘그나마’ 알릴 수 있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며, 이웃들이 그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3

강사는 <함께하는 활동① 우리 마을에서 생긴 일> 사례2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를 겪은 실제 사례이며, 이 시기는 조00에 의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아동성폭력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였다고 이야기한다. 강사는 성폭력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마을로 이전하고자 했을 때 나타난 공동체 반응 사이의 간극을 중심으로 해당 사례를 다룬다. 강사는 토론 과정에서 마을주민,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구청 등 각 당사자들이 처한 입장과 위치를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돕고, 다음 두 가지 지점을 중요하게 짚어준다.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된 것은 성폭력피해자가 우리사회에서 이중적인 위치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성폭력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은’ 피해자가 성폭력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거나, 피해로 인해 여성성이 훼손되었다고 여기는 등 부정적인 성적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중적 시선은 성폭력피해자를 나와 아무런 연결성이 없는 저 밖의 타자로 인식하게 만들어, 성폭력피해자가 가까이 있을 때 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논의할 수 없게 하고, 성폭력피해자를 기피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다.

2) 성폭력피해자가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려움을 가족, 이웃, 친구들과 나누고 그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동 성폭력에는 분노하지만 피해자가

성인일 때는 ‘남녀 사이의 일은 알 수 없다’고 하거나 ‘꽃뱀’으로 의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으며, 사례2처럼 성폭력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수많은 성폭력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숨기고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성폭력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면 그동안 성폭력이 끔찍한 일이라고 외면하거나 나와 상관없다고 치부하면서 성폭력피해자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의 일상과 생각부터 돌아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 4

〈함께하는 활동① 우리 마을에서 생긴 일〉 사례3은 한 마을에서 성인 남성들이 집단적 공모를 통해 십대 장애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으로, 강사는 가해자의 파렴치함이나 악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건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원인과 사례 속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적극적 개입이 가져온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사례와 같이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성폭력 피해로 인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더라도 쉽게 장애의 특성이라고만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주변사람들이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적 장애를 가진 경우, 자신의 피해를 정확히 인지하거나 적극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가 드러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지적 장애인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폭력에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쉬우며, 위 사례 역시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웃들도 피해자를 돕고 가해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가해에 동참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설명한다.

2)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가족, 이웃 등과 같이 주변사람들의 적극적인 발견과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변화를 가장 잘 알아차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이웃 간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눌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장애인 성폭력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드러난다고 강조하고, 위 사례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처럼 주변의 장애인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변화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지나치지 말고 그와 관련한 대화를 자세히 나누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5

〈함께하는 활동 ① 우리 마을에서 생긴 일〉 사례4는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의 현수막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며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마포구청이 개제를 불허한 실제 사례이다. 토론 과정에서 사람들이 성소수자를 낯설게 느끼는 이유를 살펴보고, 성별 정체성 및 성적지향, 성정체성의 차이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배제, 차별 폭력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1) 성소수자란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성적인 특질로 인해 차별받는 집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성소수자와 관련한 개념을 간단히 소개해도 좋다. 강사는 우리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 참여자들에게 질문해보고, 위 사례에서 드러난 마포구청의 반응은 성소수자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낯설, 혐오가 뒤섞인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성소수자 차별과 배제는 ‘이성에 중심주의’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성애 중심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섹슈얼리티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며, 이때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간성, 자신의 성 정체성을 특정하지 않은 사람 등, 성소수자와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기 어렵게 한다고 설명한다.

2) 성소수자는 현수막의 내용처럼 이미 해당 마을에 살고 있지만 마포구청의 반응과 같은 몰이해와 편견, 차별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 정체성의 차이가 차별이나 혐오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성소수자는 문란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이며, 이러한 편견을 근거로 현수막 문구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혐오감을 준다고 판단한 마포구청의 결정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설명한다. 마포구에 성소수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현수막으로 드러내는 것에 혐오감을 표현하는 주민이 있다면, 마포구는 주민이 성소수자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마을 구성원들이 행복한 마을은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 전개 2

‘함께 살기’ 위한 우리 마을의 지혜 찾기

● 핵심 메시지

마을에서 함께 살기는 마을 내부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하려는  
구성원들의 지혜를 통해 가능하다.

**1**

전개1에서 각 사례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함께하는 활동 ② ‘내가 000 이라면’>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 따라 사건의 해결 과정에 어떻게 동참하고 개입할지를 생각해보고, 과정상의 어려움이나 의문을 나눌 것을 제안한다. 이때 <함께하는 활동 ①>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모둠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전체 사례를 다루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 참여자 수와 시간을 고려하여 한 모둠별로 하나의 사례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고 토론 내용을 공유하거나, 모두가 한 가지 사례를 정해 집중 토론할 수도 있다.

내가 옆집 사람이라면, 내가 당사자(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소수자)라면, 내가 해당 마을의 구청 직원이라면, 내가 동네 반장이라면 할 수 있는 일과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2**

마을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한 갈등이나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의 관심과 개입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마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개입은, 마을의 어떤 상황이 의심스럽고 걱정될 때 직접 행동에 나서서 것 뿐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알리기, 다른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등 다양하다고 설명한다. 강사는 <함께하는 활동 ② ‘내가 000 이라면’>을 통해 교육 참여자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도록 하고, 촘촘하게 연결된 관계망이 나와 이웃사람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3

아래는 강사가 <함께하는 활동 ② ‘내가 000 이라면’>에 대한 소개 및 설명 시 제시할 수 있는 개입방법의 예이다.

#### 사례1 \_ 층간소음과 가정폭력

- 윗집에 찾아가서 이야기한다.
- 윗집에 사는 여성과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다른 이웃사람들과 상황을 공유한다.
- 심각한 경우 경찰을 부르거나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 사례2 \_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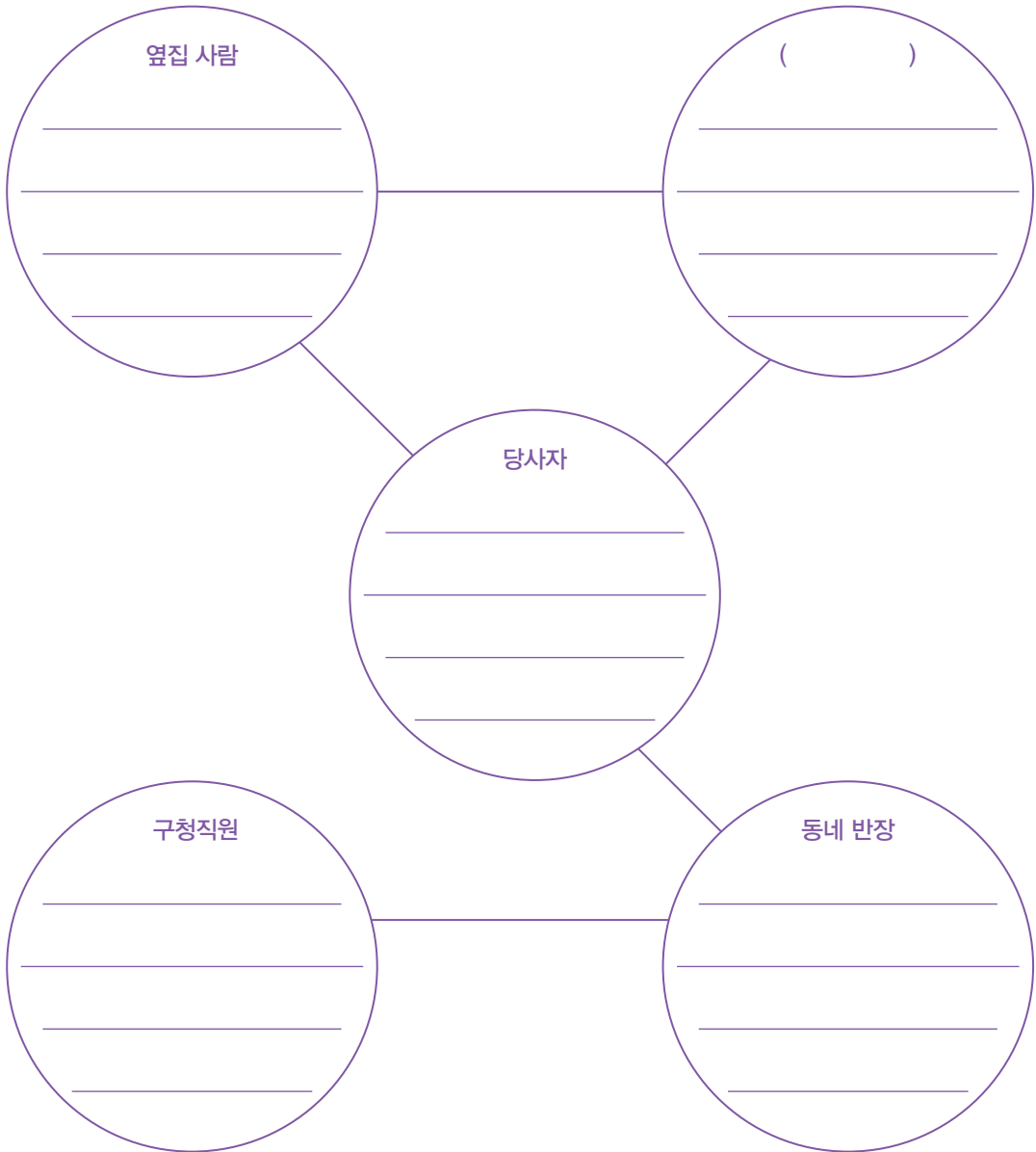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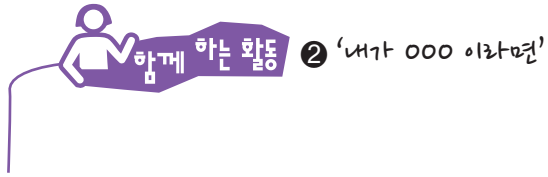
- 지역주민 간담회나 서명 활동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다.
- 지역 내 종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기회를 만든다.
- 마을 구성원들이 쉼터 운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기획한다.

#### 사례3 \_ 마을 집단 성폭력

- 사건 고소 이후에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유사한 다른 피해는 없는지 관심을 갖는다.
- 지역 내 복지관, 상담소, 클리닉 등 연결 가능한 자원을 모색한다.
- 피해로 인해 학습/직장생활/친구 관계 등에 영향이 있는지 살핀다.
-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 사례4 \_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현수막 사건

- 구청이나 국가기관에 민원을 낸다.
- 우리 집 앞에 지지 현수막을 건다.
- 나의 성적지향이 현재와 다를 때 어떤 것들이 이상해보일지 그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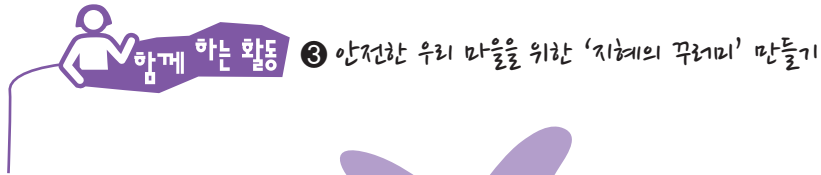
#### 4

이어서 강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마을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볼 것을 제안한다. <함께하는 활동③ 안전한 우리 마을을 위한 '지혜의 꾸러미 만들기'>를 <함께하는 활동②>와 같은 방식으로 모듈별로 진행한다.

우리 마을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생각, 도움이 되는 정책, 도움이 되는 물건 등 지역적, 개인적, 사회 문화적인 자원들을 찾아보고 발표하도록 한다.

#### 5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공유하고, 나, 주변사람들, 우리 마을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러한 자원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마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차별, 갈등을 보다 현명하게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도움이 되는 사람 :

도움이 되는 정책 또는 제도 :

도움이 되는 물건 :

도움이 되는 행동 :

그 외 도움이 되는 \_\_\_\_\_ :



● 맺음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구성원들의 책임과 역할 이해하기

● 핵심 메시지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1

강사는 교육 참여자들에게 강의를 통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답을 들어본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공간을 다시 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젠더를 둘러싼 차별과 폭력이 마을 속에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사건 해결 뿐 아니라 마을 전반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해보았다고 이야기하며 강의를 요약한다.

2

강사는 마을의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던 사례처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마을 안에 발생하는 위기나 위험에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구성원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립된 삶은 위험과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구성원인 이웃사람과 소통하며 관계망을 만들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마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나 기관, 정보, 문화 등을 활용하며 살아 움직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한다.



강사를 위한 소중한 TIP

강의 중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Q** 성차별, 성폭력과 같은 젠더 문제에 대해 말할 때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로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꺾끄러워지거나 시끄러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A** 강사는 질문자가 마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충돌보다는 마을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같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이를 지지하는 말을 해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성폭력 등 젠더와 관련한 문제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마을 내부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만연해 있거나 성차별적인 문화가 당연시되고 있다는 뜻이며, 권력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맞추면서 유지되는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는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누군가에게 차별과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면 문제없이 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누구의 입장에 설 것인가를 판단할 때 소수자,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마을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Q** 저희 마을에도 큰 소리로 부부 싸움을 하는 집이 있었는데, 신고를 몇 번 해봤지만 당사자들이 계속 부부 싸움에 끼여들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당사자들이 외부 개입을 거부할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에 개입하려고 해도 번번이 좌절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먼저 지극처럼 계속 관심을 갖고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편이 좋겠다고 지지해준다. 이는 나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 중요한 정황 기록이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경우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데, 이는 집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밖에 알려지는 것이 곧 자신의 수치이자 잘못이라고 여기거나, 집안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이 아내 역할 또는 어머니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강사는 이러한 경우 일상생활에서 이웃집 여성과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편이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정폭력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Q** 마을에 게이나 레즈비언이 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A** 성소수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시선 때문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웃에 드러내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다. 성소수자를 만나는 것이 자신 또는 자녀의 성 정체성을 변화시킬까봐 걱정하는 것은 성소수자를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거리두기하며 혐오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성 정체성은 자기에 대한 탐색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며 자녀 역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어떤 성 정체성도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공유된다면 성소수자도 마을에서 성 정체성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성 정체성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성 정체성을 비롯한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게 될 것임을 설명한다.

## 관련자료

### ❖ 영화

〈더 헌트(The Hunt)〉 토마스 빈터베르그, 115분, 덴마크, 2012

〈도가니〉 황동혁, 125분, 한국, 2011

〈12명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 시드니 루멧, 96분, 미국, 1957

### ❖ 책

『하늘을 덮다』 민주노총 김00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 모임, 메이데이, 2013

『우리는 모두 조금은 낯선 사람들』 이주여성인권포럼, 오월의 문화, 2013

『투게더』 리차드 세넷, 현암사, 2013

『마을의 귀환』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오마이북, 2013


『다시 마을이다』 조한혜정, 또하나의문화,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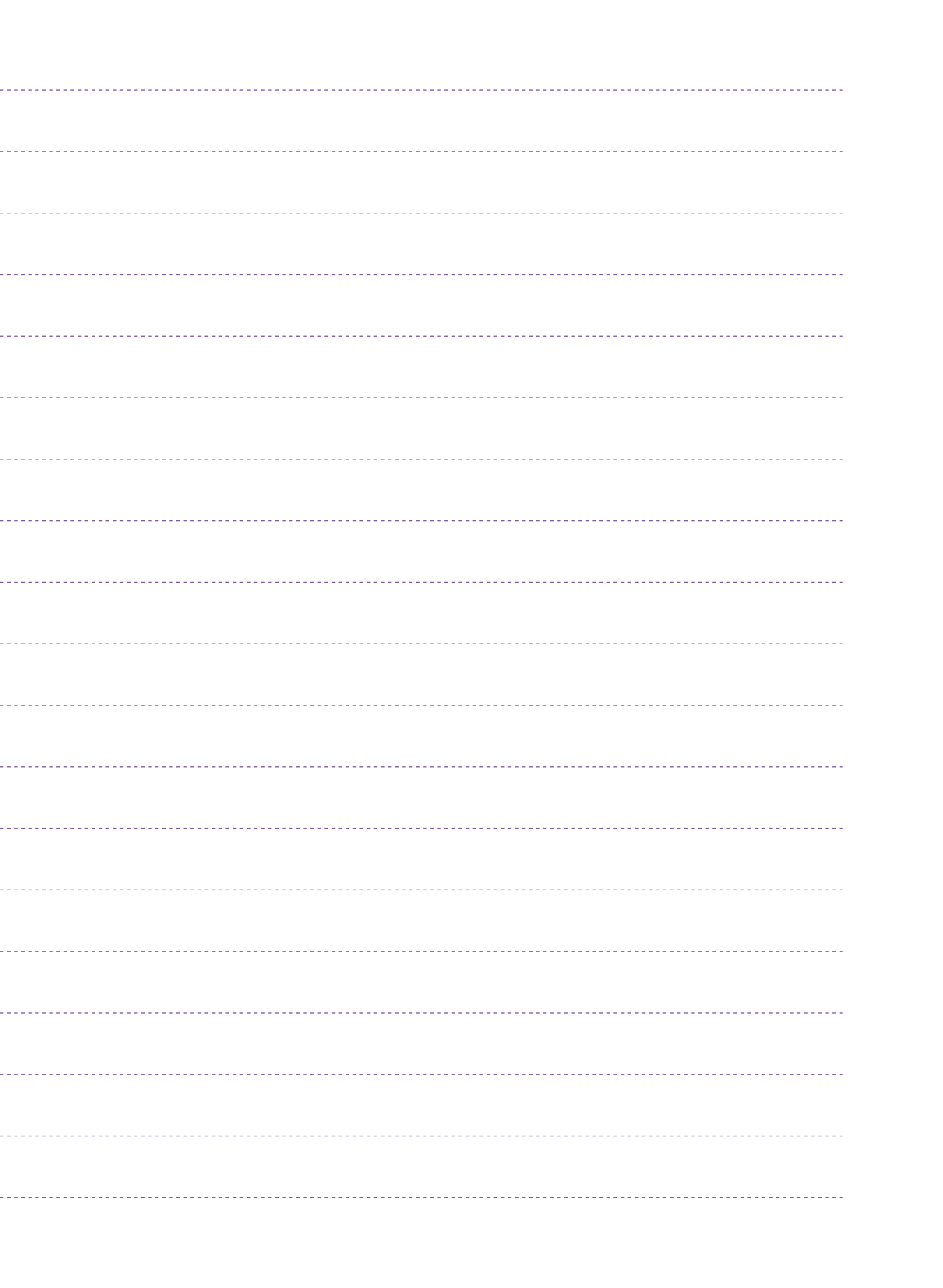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부모들이 알고 싶어 하는 37가지 질문』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자료집, 2007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편집부, 또하나의문화,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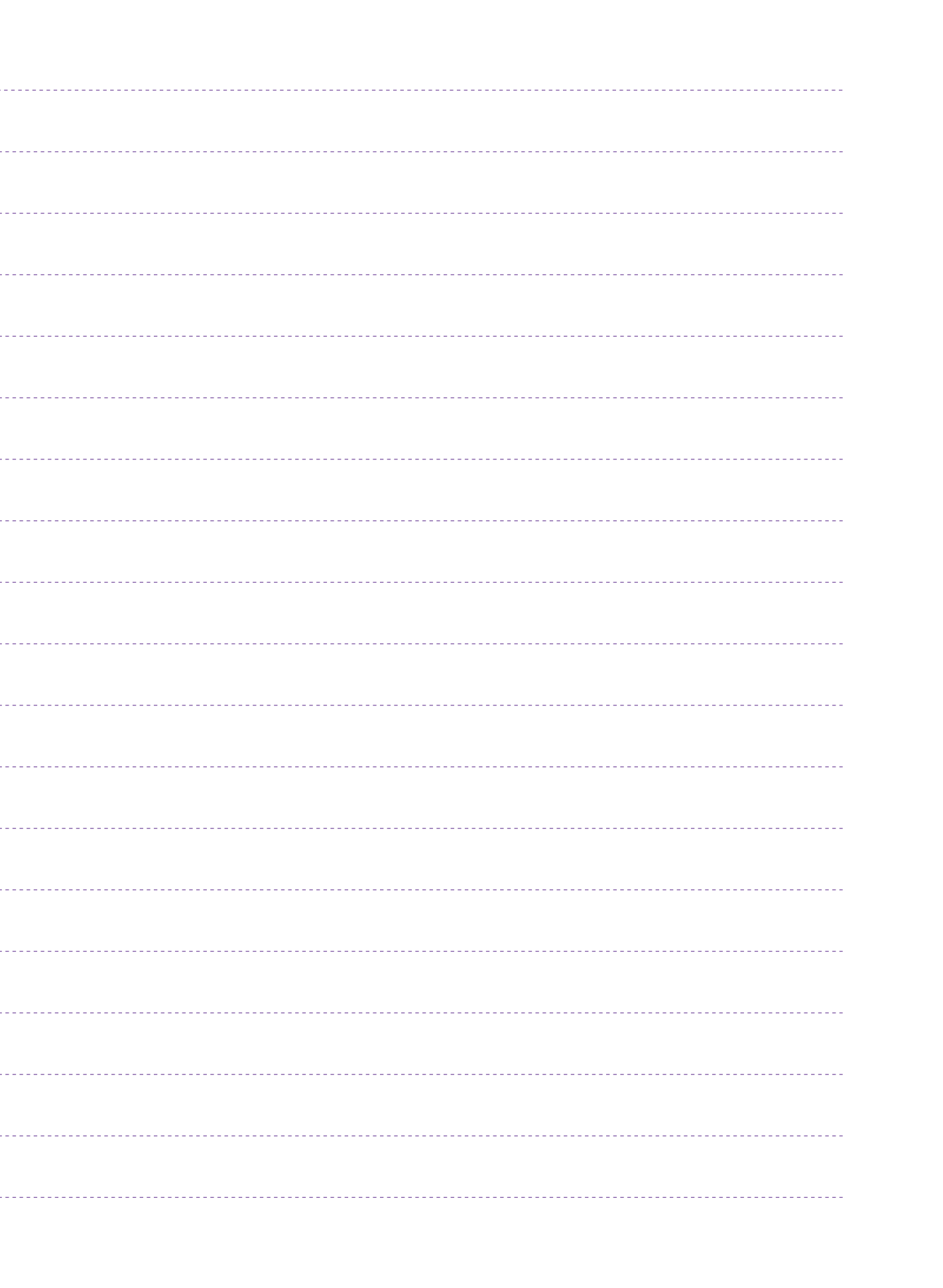
페넨곳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페넨이 백미순 만든이 김두나 김백애라 방이슬 이향심 전혜영 최지나 자문 김민아 김민혜정 박현이 배경내 이윤상  
도움준이 양진선 북디자인 디자인IS 페넨날 2013년 12월 4일 주소 (121-897)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2층 전화 02-338-2890~1  
팩스 02-338-7122 홈페이지 www.sisters.or.kr 이메일 ksvrc@sisters.or.kr 블로그 www.stoprape.or.kr 트위터 www.twitter.com/stoprape  
후원 (재) 한국여성재단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여성폭력상담소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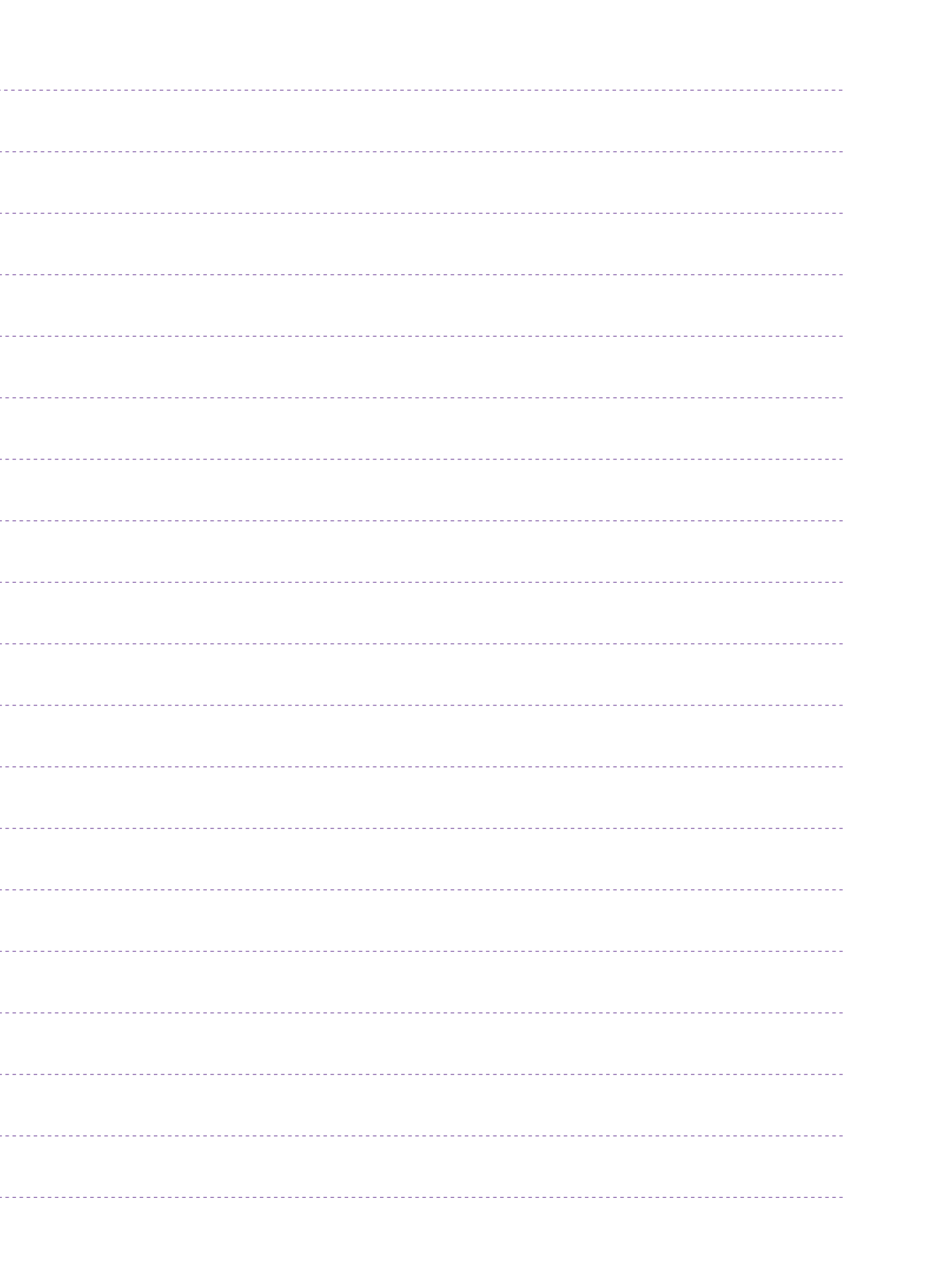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top right of the logo and extending across the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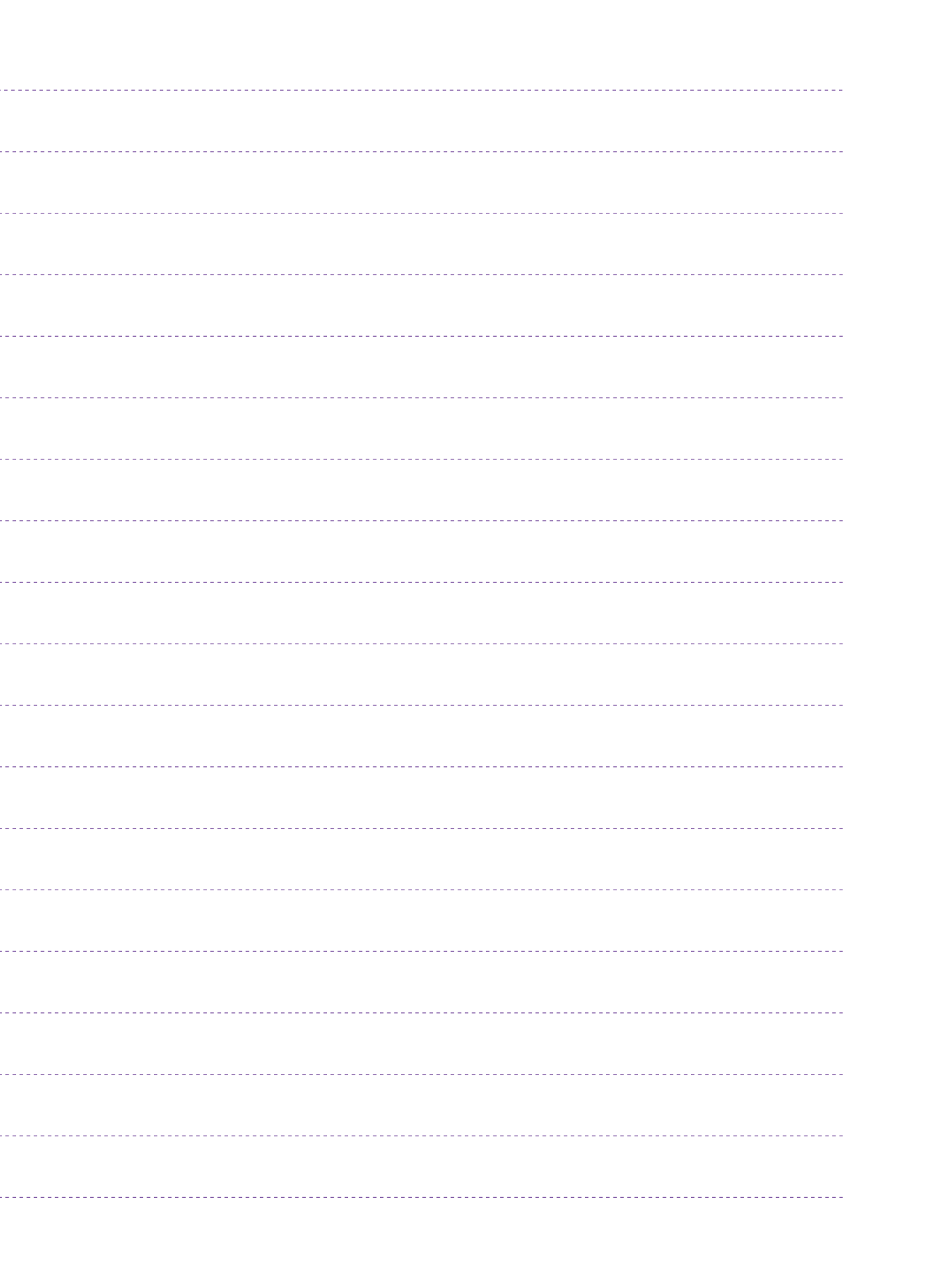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top right of the logo and extending across the page.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multiple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top right of the logo and extending across the page.